

심 화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김 소 은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

심 화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김 소 은

인 준 서

김소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대학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설레임을 지나 논문을 시작하면서 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거쳐 부족하기만 한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이것이 내 학업의 완성이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지도해주신 심화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논문을 지도해주신 이명희 교수님, 김경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질문투성이인 저를 보듬어준 대학원 친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늦각이 공부에 여러면으로 힘이 되어주신 시부모님과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환이네 가족들과 동민이네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힘들어 할 때마다 큰 나무의 그늘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남편 규현씨와 충견 셀리, 그리고 배속에서 늘 함께였으며 논문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 준 사랑하는 나의 딸 윤하에게도 이 겨울에 따뜻한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2005년 12월

김 소 은

논문개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禮)는 사회적 질서의 규범과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한다. 특히 사례(四禮)중에서도 혼례(婚禮)는 예부터 가장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혼례는 이성이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가업을 계승하며 집안을 번성하게 하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중요한 규범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혼례제도와 전통혼례복을 연구해봄으로써 어떻게 혼례문화가 변화되어 왔는지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알아봄으로써 전통혼례복에 담긴 근본정신과 가치관, 더 나아가 생활양식도 계속적으로 전승되어 현대생활에 부각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복식은 가장 가시적(可視的)인 문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매우 복잡적이고 다면적이어서 복식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은 물론이며 그 복식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의식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 우리옷의 전통성과 그 오랜 전통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통혼례복을 알아봄으로 전통문화를 어떻게 이어나가며 현대문화를 어떻게 창조해가야 할지 방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논문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박물관과 개인소장품을 중심으로 혼례복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전통혼례의 계승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혼례식이 올려지는 곳을 조사하였다. 또 미래의 전통혼례 모습의 방향

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혼례의 주인이 될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전통혼례는 우리나라 혼례의 근원이 된 육례혼례제인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길, 친영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다가 현종 10년(1844)에 간행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혼례를 의혼·납채·납폐·친영의 사례(四禮)로 설명하고 간소화 하였다. 혼례식에 해당하는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으로 의미를 두어 진행하였다.

둘째, 전통 혼례복으로 신랑은 단령(團領)을 입고 사모(紗帽)를 쓰고 각대(角帶)를 하고 흑화(黑靴)를 신었으며, 신부는 원삼이나 활옷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머리에 썼다. 이와 같은 복식은 벼슬 있는 자의 관복(冠服)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혼례가 일생을 통한 최고의 경사스러운 의식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부터 유입된 서양문화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사회환경은 물론 정치, 경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개인에게도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고 생활양식과 혼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대화 이후의 경제성장과 서구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전통혼례복은 서양식혼례 후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폐백 때 입혀지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전세계의 생활문화가 교류되고 있는 이때에 전통혼례복을 무조건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이라는 이유와 전통이라는 명분으로만은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복을 입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전통혼례에 대한 인식과

혼례복의 착용의사를 알아보았다. 여자가 남자보다는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며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지만 전통혼례복을 장려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높았다. 또 우리나라 전통혼례복이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생각한 긍정적인 태도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혼례복의 계승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도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혼례복이 가지는 다소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개발 시킨다면 우리의 전통혼례복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통혼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등을 정부가 마련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혼례를 행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겠다.

전통혼례복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전통복식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려 혼례복의 입는 방법을 간편화 한다거나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며 직접 입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다.

전통혼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전통혼례복이 더 많이 입혀지고 우리옷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1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사상과 의례4
2. 혼례7

III. 혼례의 변천

1. 혼례절차 14
2. 혼례복 27
3. 전통혼례의 변천 59

IV. 현대혼례식에 나타난 전통혼례

1. 전통혼례의 실태 73
2. 전통혼례에 대한 제언 91

V. 결론 9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전안례(奠雁禮) 의식절차	22
<표 2> 교배례(交拜禮) 의식절차	23
<표 3> 합근례(合卺禮) 의식절차	27
<표 4> 활옷의 구성색이 가지는 의미	49
<표 5> 활옷에 나타난 문양의 의미	50
<표 6> 녹원삼의 구성색이 가지는 의미	54
<표 7> 장소별 혼례 절차 비교	81
<표 8> 장소별 전통혼례복 비교	82
<표 9> 전통혼례에 대한 태도	84
<표 10> 입고 싶은 전통혼례복	88

그림 목 차

<그림 1> 주자가례(표지)	9
<그림 2> 주자가례(혼례)	9
<그림 3>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심의	10
<그림 4>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소의	10
<그림 5> 가례집람 (家禮輯覽)	10
<그림 6> 사례편람(납채) 四禮便覽(納采)	14
<그림 7> 기러기	15
<그림 8> 가례집람(폐도)家禮輯覽(幣圖)	15
<그림 9> 주자가례 혼례친영지도 (朱子家禮 婚禮親迎之圖)	17
<그림 10> 홀기(笏記)- 혼례식 순서	19
<그림 11> 홀기(笏記)를 부르는 노인	19
<그림 12>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되는 혼례	19
<그림 13> 초례청	20
<그림 14> 초례상차림	20
<그림 15> 주병, 잔, 잔받침, 젓가락, 백항아, 퇴주기	20
<그림 16> 물담은 세숫대야, 수건	20
<그림 17> 신랑이 기러기를 상위에 놓는다	21
<그림 18> 조선 후기 초례청의 모습	29
<그림 19> 조선조 말엽의 혼례의식	29
<그림 20> 바지 저고리	30
<그림 21> 16세기 창의	31

<그림 22> 대원군 중치막	31
<그림 23> 도포	31
<그림 24> 홍색 단령 (앞·뒤)	33
<그림 25> 청색 단령	33
<그림 26> 쌍학흉배	33
<그림 27> 사모	35
<그림 28> 각대	35
<그림 29> 목화	35
<그림 30> 다리속곳	37
<그림 31> 속속곳	37
<그림 32> 바지	37
<그림 33> 너른바지	37
<그림 34> 단속곳	37
<그림 35> 대슴치마	37
<그림 36> 무지기치마	37
<그림 37> 속적삼	38
<그림 38> 속저고리	38
<그림 39> 삼회장저고리	38
<그림 40> 황유홍상	39
<그림 41> 염의	42
<그림 42> 염의도	42
<그림 43> 의왕비당의	44
<그림 44> 덕혜공주당의	44
<그림 45> 당의	45

<그림 46> 당의	45
<그림 47> 복은공주활옷	48
<그림 48> 민간활옷	48
<그림 49> 왕실용활옷(앞·뒤)	48
<그림 50> 16c이단하부인원삼	53
<그림 51> 17c화순옹주원삼	53
<그림 52> 19c초록직금원삼	53
<그림 53> 민간원삼	53
<그림 54> 민간녹원삼	53
<그림 55> 화관	56
<그림 56> 오봉족두리	56
<그림 57> 족두리	56
<그림 58> 숨족두리	56
<그림 59> 19세기댕기	58
<그림 60> 도투락댕기	58
<그림 61> 앞댕기	58
<그림 62> 운혜	59
<그림 63> 운혜	59
<그림 64> 당혜	59
<그림 65> 당혜	59
<그림 66> 황신덕씨결혼식	61
<그림 67> 박사라씨결혼식	61
<그림 68> 송정임씨결혼식	61
<그림 69> 1934년결혼식	61

<그림 70> 1930년후반결혼식	63
<그림 71> 1960년대결혼식	63
<그림 72> 1935년	66
<그림 73> 1940년	66
<그림 74> 1942년	66
<그림 75> 1948년	68
<그림 76> 1965년	69
<그림 77> 1965년결혼식	69
<그림 78> 1974년결혼식	70
<그림 79> 1979년결혼식	70
<그림 80> 1985년결혼식	71
<그림 81> 1986년결혼식	71
<그림 82> 1987년결혼식	71
<그림 83> 1987년결혼식	71
<그림 84> 한국의 집에서 착용되는 전통 혼례복	75
<그림 85> 한국의 집에서 행해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76
<그림 86> 명륜당 야외결혼식장의 모습	76
<그림 87> 명륜당 야외 결혼식모습	76
<그림 88> 봉은사 연화전통 혼례식장에서의 혼례모습과 혼례복 착용 모습	77
<그림 89>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치러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78
<그림 90> 남산예술원에서 치러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78
<그림 91> 우리 옛 멋에서 기획하여 치러지는 전통 혼례의 모습	79
<그림 92>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	85
<그림 93> 전통혼례복의 착용이유	86

<그림 94> 전통혼례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87
<그림 95> 전통혼례복의 미래	88
<그림 96> 전통혼례복의 긍정적 이미지	89
<그림 97> 전통혼례복의 부정적 이미지	89

I. 서 론

전통이란 역사적으로 전승된 문화를 뜻한다. 그 문화에는 사고와 행위양식, 관행 그리고 행동까지도 관습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문화에는 그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施行錯誤)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역사적(歷史的) 산물(產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그 민족이 간직해온 삶의 지혜인 동시에 생활의 지식이다. 그러한 문화가 쌓이고 쌓여 오늘의 문화를 이끌어 왔다. 과거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문화가 창출(創出)될 수 있고, 현재의 문화가 있음으로써 미래의 문화가 예견(豫見)되는 것이다. 과거와 단절된 현재의 문화, 현재와 단절된 미래의 문화란 결코 상상(想像)할 수 없다.

혼례 또한 역사적 산물인 규범이며 관습이다. 혼례는 가례(家禮) 중 사례(四禮: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하나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의식이며, 혼례는 일생에 한번 치르게 되는 의식이므로 일생일대를 통해서 경사스러운 최고의 예식(禮式)이다.

전통 혼례복은 1910년 이후 유교적 가치관에서 탈피, 새로운 세계관 및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신식결혼식을 거행하거나 기독교식 혼례가 이루어지면서 예식장이 생기게 되고,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모방, 수용하게 되었다. 과거의 생활양식이 외래문화 요소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중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문화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과 일제식민지문화 그리고 서구문화가 뒤섞인 까닭에 이미 전통혼례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전통혼례는 1950년대

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던 서구 문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¹⁾ 본격적으로 웨딩드레스를 선호하게 되었다. 현재 전통 혼례복은 서구식 혼례식을 마친 후 폐백 시에 착용함으로써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형태는 많이 변형되었다.

혼례는 개인은 물론 사회문화를 이루는데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혼례문화가 서구문명의 전파와 산업화과정, 경제적인 성장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본으로 한 유교사상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의례(儀禮)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전통의식을 점점 멀리게 되고 오늘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의례는 의복의 모습을 크게 좌우시킨다. 이것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의복에 대해서 사회가 공통성을 요구하므로 의례적인 행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공통적인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화 속에 간직되어 온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찾아, 그것을 현대생활에 조화롭게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에는 생활문화에 반영되는 풍속과 혼례에 대한 복식을 탐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의식과 가치관 속에서 전통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혼례 및 혼례복이 예로부터 담고 있던 근본정신, 지혜와 슬기를 알리고 전래, 발전시켜서 현대 생활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계승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통혼례복

1) 강정림, “한국사회 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p. 10.

의 자리가 점차 좁아져가지 않도록 혼례자에게 전통혼례복의 의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혼례복을 선호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과 논문자료를 살펴보고 또 혼례복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소장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전통혼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혼례절차와 혼례복 중 활옷(闊衣)과 원삼(圓衫), 당의(唐衣)등의 유물과 고증을 근거로 복원한 옷들을 문헌과 실물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조선시대 입었던 혼례복의 형태와 종류, 복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복의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어지고 있는 전통혼례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둘째, 현대에 치러지고 있는 전통혼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전통혼례식이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한국의 집', '명륜당 야외 전통 혼례식장', '봉은사 연화 전통 혼례식장', '롯데월드 민속관', '남산예술원', '우리 옛 멋' 6곳을 방문하여 그곳의 전통혼례 절차와 착용하는 혼례복이 우리의 전통양식을 얼마나 잘 계승하여 행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전통혼례와 혼례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며 결혼을 하게 될 주체인 남녀 대학생들을 범주로 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해 조사·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사상과 의례

‘전통’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물려주는 것’, ‘넘겨주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물림해 내려온 문화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하자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날로부터 이어내려 오는 사상, 행동 방식, 관습이라 하겠다.

전통이란 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계통(系統)을 받아 전한다’는 뜻과 ‘관습(慣習) 가운데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특히 높은 규범적(規範的) 의의를 지니고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²⁾ 즉, 전통이란 단순히 과거의 것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이란 말에는 지속성(持續性)과 변화성(變化性)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³⁾ 그리고 이 전통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변화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의 상실이라는 단절론(斷切論)에 도달하게 되고, 반대로 전통의 지속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의 답습(踏襲)이라는 정체론(停滯論)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이라 하면 단순히 ‘과거의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하고 있거나,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것, 미개발(未開發)된 것을 의미하는

2) 권순만, 「종합관혼상제」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2002), p. 15.

3) 이기백, “韓國의 傳統文化”, 「西江人文論叢」 7, 1(1997), p. 5.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전통을 흔히 전근대적이고 미개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통의 변화성을 간과한 채 지속성만을 강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전통주의(傳統主義)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보수적인 경향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선입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은 인습(因襲)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풍습을 스스로의 깨달음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는 인습에는 전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의 하나인 변화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이란 말에는 변화와 지속성이란 상반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음⁴⁾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 성격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통문화란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며 그 사회집단의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현재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축적된 문화양식 중에서 현재의 사회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란 과거에 속하며 현재에도 유지되는 고유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⁵⁾

4) 임영정, 「한국의 전통문화」(서울 : 아름다운 세상, 1998), pp. 19~21.

5) 金鍾瑞 외, 「傳統思想의 現代的 意味」(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p. 13.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禮)는 사회적 질서의 규범과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였다.⁶⁾

공자는 예를 형식적,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내면화하여 예의 근거를 인간의 본질에 두었다.

우리나라는 고려말조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중국 남송의 주자(朱子)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 등 사대부터 예를 참조하여 관·혼·상·제 순으로 정리한 예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 <그림 1>의 도입과 우리의 전통 사상의 접목을 통하여 생활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유학자들은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많은 예서를 편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례생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예학의 종장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1583년에 「상례비요(喪禮備要)」와 1599년에 「주자가례」에 주석을 단 해설서인 「가례집람(家禮輯覽)」 <그림 5>를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의례정립의 계기가 되었다.

의례(儀禮)란 격식을 갖춘 행사를 말하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의례가 사례(四禮)이다. 「주자가례」가 사류(士類)들을 중심으로 실행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 사람들에게도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가 보편화되었다.⁷⁾

전통사회의 가정은 가족간 혈연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의 윤리가 강조되었고, 의례는 항상 그 중심에 서서 가족간 조화와 질서를 위한 구심체로서 구실을 했다. 가족간 윤리의식과 생활 속의 교육은 가정의

6) 元俊載, 「민족학술자료총서」 6차 예 가례·혼례7. “家禮의 教育的 考察” (서울: 우리마당 터, 2003), p. 56.

7) 김영일 외, 「한국의 민속과 전통의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2004), p. 204.

대소사와 반복되는 의례과정을 통하여 명분화되고 강화되었다. 즉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의례는 가족·친척간 혈연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⁸⁾ 주는 장(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 가정생활에서 의례는 생활 속의 규범이며 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혼례

1) 전통혼례

혼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이성(異性 :男女)의 결합이요, 가통을 잇기 위한 성적 결합이며, 서로 공경하며 분별이 있고 평생 고락을 같이하는 인격적 결합이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혼인은 두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두 가족간의 사회적 결합이기도 하다.

혼례(婚禮)란 혼인을 치를 때 따르는 의례와 절차로 예로부터 일생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경사이므로 대례지전(大禮之典)이라고도 한다.

전통혼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화를 일구어 오는 동안 정착된 혼인의식과 또 하나는 고려 말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사마광(司馬光)의 「書儀(서의)」 등 사대부터 예를 참조하여 관·혼·상·제 순으로 정리한 예서로,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의례서인 「주자가례」가 유입되면서 행해진 유교식 혼인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대 혼속(婚俗)은 초서혼(招婿婚)이라 일컬어진다.

8) 안혜숙 외, 「한국 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서울 : 신정, 2002), p. 17.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를 이룬 뒤에 가정생활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취혼(嫁娶婚)과 초서혼(招婿婚 또는 婚人婚)으로 나누는데, 가취혼은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아가는 형태이고, 초서혼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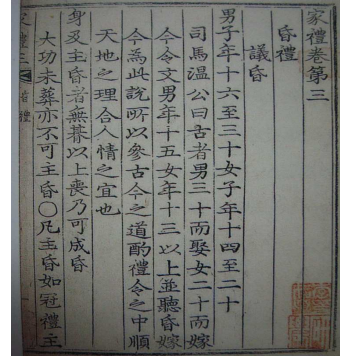
말하자면 초서혼은 데릴사위 형태인데, 집안에 딸이 있어 장성하면 본래 집 뒤에 자그마한 집을 새로이 지었고, 이것을 서옥(婿屋)이라고 한 데에서 그 유래가 있다. 이렇게 혼인한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사이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한 후에 비로소 처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형태로 일종의 모계사회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⁹⁾

이 풍속은 「주자가례」가 유입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의하면 신부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신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한 뒤에야 시댁으로 간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신랑의 초행(醮行)과 재행(再行)이 있었으며 신부의 우귀(于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남상민, 「한국전통혼례」(서울 : 예학, 2003), p. 34.



<그림 1> 주자가례 표지(朱子家禮 表紙)
(1759년,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2> 주자가례 혼례(朱子家禮 婚禮)
(1759년,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의 혼례풍습은 고려말 조선초 「주자가례」의 수용으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주자가례」를 토대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왕실과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의 혼례를 정하였다. 또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김장생의 「가례집람」이 발간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이재가 「주자가례」와 고금의 예를 정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편찬하여 혼례의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박규수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를 편찬하여 사대부 집안에서 행해지는 혼례 예복을 고찰하기도 하였는데 <그림 3, 4>에서 혼례복으로 입혀진 조선초의 심의(深衣)를 입은 남자의 모습과 소의(宵衣)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염의가 심의제(深衣制)이고, 단에 붉은 색을 쓰는 것이 다르다.”고 했듯이 그 형태는 심의와 같았으나 아랫부분에 4·5치 정도의 붉은색 선을 두르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여기에 붉은색 선을 두르는 것은 염의의 본 바탕색인 검은색이 남성을 상징하는 하늘의 양(陽)색인 반면, 붉은색은 여성을 상징하는 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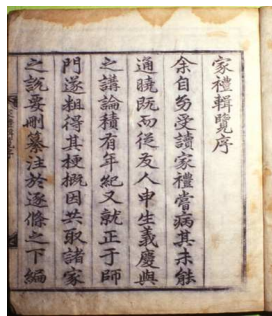
음(陰)색이었기 때문이다.¹⁰⁾



<그림 3>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심의(深衣)
(한국복식2천년, P. 176)



<그림 4>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소의(宵衣)
(한국복식2천년, P. 176)



<그림 5>가례집람(家禮輯覽)
(1685년,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는 중국의 「예기(禮記)」에 기록되어 있는 고례(古禮)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예기」에 의하면 혼례는 아내를 맞는 예(禮)라 했고 아내를 맞는 데는 반드시 일몰(日沒)때를 택하여 예를 올렸으므로 혼

10) 朴珪壽, 「居家雜服攷」, 1841,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서울: 一志社, 1988), p. 295에서 재인용.

례(昏禮)라고도 하였다.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는 뜻에서 밤에 혼례를 행한 것이다.

2) 혼례의 의미

전통적인 혼례의 의미는 「예기」에 따르면 천지의 화합을 본받아 이성(二姓)이 화합하고 백년해로하며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손을 이어 효(孝)를 실천하고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데 있다.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여겨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예기」 ‘혼의(婚儀)’편에 보면

‘장차 두 성의 좋은 것을 합쳐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계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관계되는바 소중함이 이와 같으니 군자는 이를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그러므로 이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의의에 있어서도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전통사회 혼례 규정을 보면 혼인은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이어야 했다.

남자는 16세부터 30세 사이에 장가가고 여자는 14세부터 20세 사이에 시집간다 하였다.¹²⁾ 또한 동성동본불혼으로 동성의 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었고,¹³⁾ 상중에는 금혼(禁婚)이었다.¹⁴⁾ 1년 이상의 상복을 입는 기간에는 혼

11) 「禮記」‘婚儀’, 婚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 而下 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

12) 「朱子家禮」 婚禮, 世宗 二十二年三月, ‘男子年十至三十六女子年十四至二十…’

인이 불가하여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등 3촌의 상중에는 혼인이 금지되었다.¹⁵⁾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천하고 있지만 하나의 제도로서의 혼례의 의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족 보존의 본능적인 성적 결합을 갖는데 있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본능이 있는데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낸 것이다.

둘째는 혼인이란 특별한 정신적 관계로서 인격적인 결합이다. 순결한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분별이 있고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 동안의 고락을 같이 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인격의 보완이며 자기완성의 기틀이 된다.

셋째로 혼인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사회생활의 성립이다. 이 사회 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 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혼인은 인간의 가장 큰 대사이므로 진지하고 경건한 제도를 따르게 된다. 제도라 함은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理想)의 추구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

13) 「四禮便覽」 第3章, 동성혼인 금단, p. 367.

14) 李瀾, 「성호사설」 券十, 人事門, p. 136.

15) 안혜숙 외, 앞의 책, p. 35.

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¹⁶⁾

이와 같이 혼인은 여러 가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제도라는 면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서양사상이 들어와 혼인이 본인 위주가 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본인보다도 부모, 부모보다는 가문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다. 비록 당사자가 혼인할 생각이 없다 해도 반대할 수 없지만 만일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불효로 가문을 망신시키는 일이라 용납될 수 없었다.¹⁷⁾

16) 남상민, 전게서,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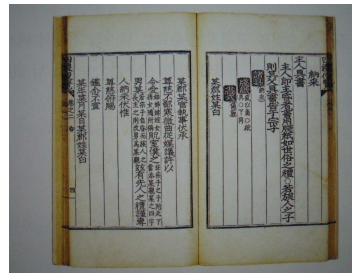
17)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전게서, p. 585.

Ⅲ. 혼례의 변천

1. 혼례절차

1) 육례혼례제(六禮婚禮制)

조선시대의 혼례는 육례(六禮)를 바탕으로 하는데, 육례란 혼례의 여섯가지 예로서, 곧 절차(節次)를 말하는 것이다. 「예기」에 기록된 육례는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예가 있으며, 우리나라 혼례 절차의 근원(根源)이 되었다.



<그림 6> 사례편람 납채(四禮便覽 納采)
(1844년, 국립민속박물관)

(1) 납채(納采)

중매인을 통해 신랑집에서 청혼을 하고 신부집에서 허혼을 하는 혼담의 말이 있는 후 남자집에서 기러기를 보내어<그림 7> 채택지례(采擇之禮)를 행하고 혼약을 청하며 이를 납채라고 한다. 「사례편람」의 납채편을 보면¹⁸⁾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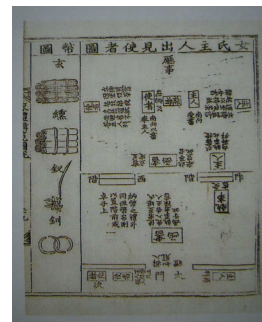
(2) 문명(問名)

납채가 끝난 다음에는 장차 이 납채의 길흉을 점치고 여자집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한다.¹⁹⁾

어머니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딸의 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어머니쪽 집안의 가풍을 살피려는 모계중심 사회의 한 유습(遺習)이기도 하다.



<그림 7 >기러기
(韓國民俗大觀, p.496)



<그림 8>가례집람폐도
(家禮輯覽 幣圖)
(1685년, 국립중앙도서관)

(3) 납길(納吉)

집안을 살펴서 좋고 합당하면 점을 친 결과를 여자의 집에 알린다. 이를 납길이라고 한다. 남자측에서 길일을 택하여 신부집에 가게 되는데 여자집에서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²⁰⁾

(4) 납징(納徵)

18) 納采, 「四禮便覽」 “主人具書主人即主婚者書用牋紙如世俗之禮。若族人之子則具父具書告于宗子…”

19) 조효순, “조선초기혼례풍속연구”, 복식문화학회지, 5,1(1997), p. 34.

20)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서울 : 학연문화사, 1992), p. 145.

납길이 끝나면 혼인의 구체적인 증표로 남자의 집에서 여자 집으로 비단을 보내어 혼약의 징표(徵表)로 삼는다. 이것을 납징 또는 납폐(納幣)라고 한다. 「가례집람」 폐도(幣圖)의 예물그림으로 알 수 있다<그림 8>.

(5) 청기(請期)

「구의」에 보면 청기에 대한 한 구절을 납폐의 구절에 합쳤다. 언제 혼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²¹⁾ 납징의 절차가 끝난 다음 남자집에서 여자집에 혼인 날짜를 청하는데 이를 청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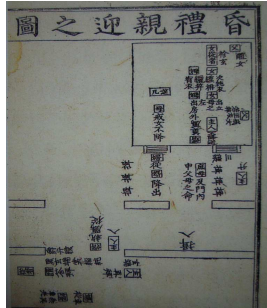
이 모든 예는 남자집에서 여자집에 사람을 보내어 하게 되는데 여자쪽 주혼자는 사당에 자리를 펴놓고 대문 밖에 나와서 남자쪽 사람을 맞아들인다. 남자쪽 사람은 사당 앞에서 세 번 읊(揖)을 하고 여자쪽 주인에게 혼사에 대한 예의를 경건하고 신중하게 표하였는데, 이는 혼례를 바르게 하기 위한 정성이었다.

(6) 친영(親迎)

친영이란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혼례날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간다. 이를 친영이라 한다.²²⁾ 남자집의 아버지가 몸소 그 아들에게 초례(醮禮)를 끝내고 말씀하시기를 몸소 신부를 마중하도록 했다. 혼례친영지도는 친영 의례의 배치 그림이다<그림 9>.

21) 김장생, 「가례집람」 구장각본, p. 24.

22)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89) p. 286.



<그림 9>주자가례
 혼례친영지도(朱子家禮
 婚禮親迎之圖)(한국전통
 혼례, P. 35)

신랑은 여자의 집에 이르러 신부를 맞이한다. 여자집 주인은 사당에 자리를 마련한 뒤 사위를 문 밖에서 절하며 맞이한다. 신랑은 기러기를 안고 들어가 읍양(揖讓)한 다음 사당에 올라 재배하고 기러기를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랑이 몸소 신부를 그 부모에게서 인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랑은 사당에서 내려와 신부의 수레를 모는데, 이는 신부에게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2) 사례혼례제(四禮婚禮制)

앞의 육례혼례제는 삼서육례(三誓六禮)라 하여 그 격식이 극히 엄격했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오던 혼례의 근본이 된 것은 사실이나 너무 번거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송(宋)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문공주자(文公孔子)가 이를 간소하게 줄여

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자가례」를 본받아 조선조 숙종(肅宗)때 도암(陶岩) 이재(李穡:1680~1746)가 편찬하고 그 후 헌종(憲宗) 10년 (서기 1844)에 간행한 「사례편람」에서 혼례를 의혼·납채·납폐·친영의 사례로 설명하였다.²³⁾

3) 혼례식순

혼례식순은 친영에 해당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로 요즘의 결혼식이라 하겠다. 신부집에서는 중문 안에 전례상(奠禮床)을 놓고 대청에는 교배석(交拜席)을 펴고 독좌 상(床)을 중앙에 배치하고 상에는 삼색 실과와 포혜와 콩·팥을 담아서 올려놓으며, 독좌 상 앞에는 굴과 술잔을 준비한 술상을 놓아두는 등 혼례를 치를 준비를 미리 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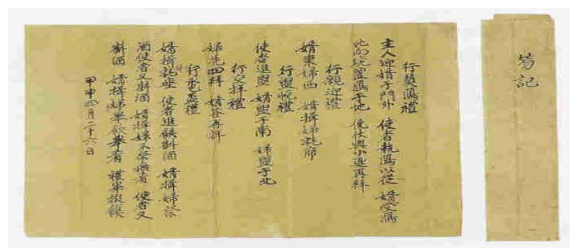
혼례식을 행하는 순서는 매우 복잡하므로 흔히 글이 좋고 예를 잘 아는 노인이 식순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홀기(笏記)를 부르며<그림 10> 이에 따라 예를 행하게 되는데 혼례식의 순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았다.²⁴⁾

친영은 전안례와 교배례, 합근례로 진행되는데 이를 합쳐 초례라고 한다. 그래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초례를 치른다’고 하고 혼례 치르는 곳을 ‘초례청’이라고 일컫는다<그림 13>.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초례는 친영의 한 과정으로, 기러기를 드리는 전안례(奠雁禮) 후에 이어지는

23) 남상민, 전게서, pp. 38~41.

24) 李順洪, 「韓國傳統 婚姻考」(서울: 學研文化社, 1992), p. 122.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罇禮)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초례청은 신부집의 대청이나 마당에 마련된다. 동서 방향으로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친 다음 초례상을 한가운데에 남북 방향으로 놓고, 상 위에는 촛불 한 쌍과 송죽(松竹) 화병 두 개, 백미(白米) 두 그릇과 닭 한 쌍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그림 14>. 한 쪽에는 물을 담은 세숫대야 두 개와 수건, 그리고 술상 두 개를 마련해 둔다 <그림 15, 16>.



<그림 10>홀기(笄記)-혼례식 순서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1>홀기(笄記)를 부르는 노인(결혼문화와 예절, p.20)



<그림 12>홀기(笄記)에 따라 진행되는 혼례(결혼문화와 예절, p.21)



<그림 13>초례청
(한국전통혼례, p.79)



<그림 14>초례상차림
(관혼상제, p.81)



<그림 15>주병, 잔, 잔받침,
젓가락, 백항아리, 퇴주기
(한국전통혼례, p.79)



<그림 16>물담은 세숫대야,
수건
(한국전통혼례, p.80)

(1)전안례(奠雁禮)

전안례란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예로서<그림 17>,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연분을 지킨다는 백년해로 서약의 징표이다.²⁵⁾ 이는 혼례식의 첫 번 순서로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그림17>신랑이기러기를상위에 놓는다(관혼상제,p.88)

전안례는 혼인 과정에서 상징적인 예식이다. 산 기러기를 가지고 예를 올린 때도 있었으나 대개 나무로 깎은 목기러기를 채색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였고<그림 7>, 가끔은 종이로 만든 기러기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²⁶⁾이때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덕목을

사람이 본 받자는 뜻이며 그 세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보통 수명이 15~20년 인데,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둘째,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하여 예를 지킨다.

셋째, 기러기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기러기를



25) 남상민, 전게서, p. 95.

26)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전게서, p. 496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안례 의식 절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표 1> 전안례 의식절차

순서	절차	내용	그림
1	주인영서우문의외 (主人迎婿于門外)	주인이 문 밖으로 나가 신랑을 맞아들인다.	
2	신랑읍양이입 (新郎揖讓而入)	신랑은 읍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3	시자집안이종 (侍者執雁而從)	시자는 기러기를 가지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4	신랑취전현소 (新郎就奠覲所)	신랑이 전안상(奠雁床) 앞으로 간다.	
5	신랑북향궐 (新郎北向跪)	신랑은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는다.	
6	신랑포안우좌기수 (新郎抱雁于左基首)	신랑은 기러기를 받아 머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앉는다.	
7	치안우지 (置雁于地)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는다.	
8	신랑흥 (新郎興)	신랑은 머리를 숙였다가 일어선다.	
9	신랑소퇴재배 (新郎小退再拜)	신랑은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한다.	
10	주혼시자수지 (主婚侍者受之)	신부집 어머니가 식구가 기러기를 들어 안으로 가져간다.	

(사진 출처 : 관혼상제 p.88, 한국전통혼례, pp.100~102)

(2) 교배례(交拜禮)





신랑과 신부는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하게 된다.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서로 맞절을 하는 의식이다. 상견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









이 교배례로써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신랑이 대례상 앞에 나온 뒤 신부와 마주서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신부가 머리를 얹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배례 의식 절차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교배례 의식절차

순서	절차	내용	그림
1	신랑취초례청 (新郎就醮禮廳)	신랑은 초례청 자리로 동쪽을 향하여 간다.	
2	신랑동향립 (新郎東向立)	신랑은 동북쪽을 향하여 약간 돌아서서 외면하고 선다.	
3	신부출 (新婦出)	신부는 수모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오되 백포(白布)를 깔고 위를 밟고 걸어나와 초례청 서쪽 자리에 나와선다.	
4	신랑정면 (新郎正面)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바로선다.	
5	신랑신부궤 (新郎新婦跪)	신랑과 신부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6	진관진세 (進盥進洗), 신랑관우남 (新郎盥于南) 신부관우북 (新婦盥于北)	신랑은 남쪽에 있는 세수대야 앞으로, 신부는 북쪽에 있는 세수대야 앞으로 간다.	
7	관세집건 (盥洗執巾)	신랑 신부 각각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속례(俗禮)에서는 종자욕지(從者沃止)라 하여 수모가 손가락을 세 번 통겨서 신부의 손씻는 것을 대신한다.	
8	신랑신부흥 (新郎新婦興)	신랑 신부 일어선다.	
9	신랑음취석 (新郎揖就席)	신랑이 신부에게 음을 하고 초례상 가까이 간다.	
10	신부선재배 (新婦先再拜)	신부가 신랑에게 먼저 두 번 절한다.	
11	신랑답일배 (新郎答一拜)	신랑이 한 번 답례한다.	
12	신부우재배 (新婦于再拜)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13	신랑우답일배 (新郎于答一拜)	신랑이 다시 한 번 절한다.	
14	신랑음 신부각궤좌 (新郎揖 新婦各跪座)	신랑은 음하고 각각 앉는다.	

15	시자진찬 (侍者進饌)	시자(수모)가 술잔을 신랑에게 준다.	
16	시자각집주 (侍者各斟酒)	시자(수모)가 잔에 술을 부어 준다.	
17	신랑음 신부제주거효 (新郎揖新婦祭酒 舉着)	신랑은 읊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 위에 놓는다.	
18	우집주 (又斟酒)	시자(수모)가 신랑 신부 술잔에 다시 술을 부어준다.	
19	신랑음신부거음 부제무효 (新郎邑新婦舉飲 不祭無着)	신랑은 읊하고 술을 마시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다.	

(사진 출처 : 한국전통혼례, pp.103~107; 관혼상제, p.84; <http://dh254.com.ne.kr>)

(3) 합근례(盃禮)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로 근배례(盃禮)라고도 한다.²⁷⁾ 술을 한곳에 화합해서 권하면 신랑과 신부가 각기 한번씩을 받아 마신다. 이것을 합근이라 한다.²⁸⁾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여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주박은 두개를 준비하고 청실과 홍실로 묶게 되는데 표주박이 없으면 술잔을 사용하기도 한다. 표주박은 그것이 반으로 쪼개지면 그 짝은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게 되므로, 그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

27) 남상민, 전게서, p. 99.

28) 김장생, 전게서, p. 45.

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합근례 때는 신랑 신부는 3번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그 첫째 잔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수례하는 잔이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즉 찬자(贊者)가 사발잔에 술을 따르고 찬을 베풀어 놓으면 신랑이 읍하고 신랑·신부는 각기 술을 땅에 약간 부어 제주(祭酒)한 다음 조금 마신다. 안주는 들어 상위에 놓고 먹지 않는다. 찬자가 다시 양쪽 잔에 술을 따르면, 신랑은 읍하고 신랑·신부는 각기 술을 마시나 안주는 먹지 않는다. 신랑·신부는 서로 잔을 교환하는데 신랑의 잔은 위로 신부의 잔은 밑으로 교환하여 각각 마신다. 지방에 따라서는 셋째 잔을 따르되 신랑 신부가 청실 홍실로 연결한 쪽바가지와 잔을 바꾸어 마시기도 한다.²⁹⁾

이와 같은 합근례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말에 행례(行禮)할 때 창홀법(唱笏法)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행해지는 합근례가 옛날과는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³⁰⁾ 신부측에서 먼저 잔에 술을 부어 신랑에게 보내며 신랑은 잔을 받아 땅위에 약간 부어 제주한 뒤 조금 마시고 신부에게 보낸다. 신부도 잔을 받아 조금 마신다. 두 번째는 반대로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술잔을 보내고, 신부가 먼저 마신 후 신랑에게 보내는 것으로 한 차례씩 환음(歡飲)한다. 세 번째는 표주박 잔에 술을 부어 전과 같이 교환하여 마신다.

이와 같은 합근례 의식절차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9) 裴泳基 외, 전게서, pp. 105~107.

30) 「四禮便覽」 新·舊·冠婚喪祭例大典, (서울 : 1987, 明文堂), p. 57.

<표 3> 합근례 의식절차

순서	절차	내용	그림
1	우취근서부지전 (又取壻壻之前)	표주박을 신랑 신부에게 준다.	
2	시자각집주 (侍者各斟酒)	시자(수모)가 잔에 술을 부어준다.	
3	교배항호서상부하 (交杯相互壻上婦下)	신랑의 표주박은 상 위로, 신부의 표주박은 상 밑으로 넘겨 준다.	
4	각거음부제무효 (各舉飲不祭無肴)	신랑 신부는 서로 바꾼 잔으로 술을 마시되, 땅에 기울여 쏟지 않고 안주도 들지 않는다.	
5	예필철상 (禮畢撤床)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6	각종기소 (各從其所)	신랑 신부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사진출처 : 한국전통혼례, p108~109, <http://dh254.com.ne.kr>)

2. 혼례복

조선 후기에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으로 사용된 것은 원삼이다. 원삼은 신라 문무왕 때에 궁중 예복으로 공주와 왕자의 녹원삼이 일반 서민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어 족두리와 함께 지금까지 전통 혼례식에서 착용되고 있다. 또 서민들은 부담 없는 혼례복으로 당의를 사용했다. 완고한 선비 가문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다리 근처를 휩싸지 못하고 벌어져 예복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배척하기도 했다. 또 혼례복에는 궁중용인 운혜와 온혜의 착용도 허용되

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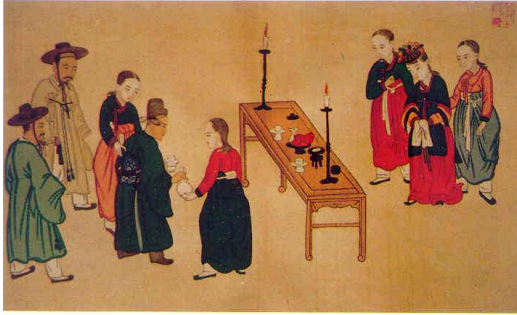
이처럼 일반 서민이 평소에는 입을 수 없는 의복을 일생에 단 한번인 혼례 때에 입게 함으로써 상향성 심리를 충족시킨 셈이다. 혼례복을 마련하는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으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빌려입기도 하고 집안 단위로 마련하여 대대로 물려가며 입기도 하였다. 이런 풍속에 대해 박규수는 “옷은 자기 분수에 맞게 차려 입어야 하는데 어찌 돈을 주고 남의 옷을 세내어 잠깐 동안 가식으로 차려 입는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서로 협조하는 민중 의식과 미덕을 기릴 수 있다. 아무튼 경제 부담을 가장 작게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예복을 갖추어 줄 알았던 서민의 지혜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다.

32)

조선 후기 기산 풍속화<그림 18>의 초례청에 보이는 신부는 황의홍장삼 회장에 초록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신랑의 혼례복은 사모, 청단령, 상아대, 쌍학 흉배, 목화의 차림이다. 여인들의 치마저고리 배색을 보면 녹의 홍상으로 연초록 치마, 분홍 저고리, 분홍 치마, 초록 저고리, 청치마, 다홍 저고리인데 모두 반회장이다. 갓을 쓰고 백색 또는 옥색 도포에 조아를 띠고 있는 남자도 있다.

31) 朴珪壽, 「居家雜服攷」, 1841, 趙孝純, 「복식」 (서울 : 대원사, 1989), p. 101 에서 재인용.

32) 趙孝純, 전게서, p. 101.



<그림 18> 조선 후기 초례청의 모습
(복식, p.99)



<그림 19> 조선조 말엽의 혼례의식
(한국복식풍속사연구, p.281)

1) 신랑예복

「사례편람」에 의하면 <그림 19>와 같이 신랑은 단령(團領)을 입고 사모(紗帽)를 쓰고 품대(品帶)를 하고 흑화(黑靴)를 신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혼례복식은 벼슬 있는 자의 관복(冠服)을 취함으로써 혼례가 일생을 통한 최고의 경사스러운 의식임을 복식을 통해 부여하고 있다.

(1) 적삼·고의

옛날 남자들의 내의는 속적삼과 고의가 있었다. 속적삼은 저고리보다 길이가 약간 짧았으며 겨울철에도 속적삼을 모시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시옷이 시원한 것과 같이 한평생 속 시원하게 지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³³⁾

(2) 바지·저고리

33) 박성실 외, 전게서, p. 15.

우리나라 고유복식인 저고리와 바지를 평상시와 같이 입었다<그림 20>.

조선시대 남자의 저고리는 간소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길어졌다. 바지는 삼국시대부터의 궁고(窮袴) 형태의 변형인 사폭을 댄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발목 부위를 잡아매는 것이 기본이었다.³⁴⁾ 바지부리에 대님이나 행전(行纏)을 하기도 했다.



<그림 20> 바지, 저고리
(침선장 박광훈선생의 기증전
p. 24)

(3) 창의(警衣) · 중치막(中致翼) · 도포(道袍)

조선시대 사대부계급에서는 창의를 또는 중치막 중에서 한 가지를 도포 밑에 입었던 것과 같이 신랑도 그렇게 입었으며, 혼례시의 도포는 흰색이 아니라 청색으로 하였다<그림 23>.

창의는 왕과 사대부가 평소에 입던 옷으로 대창의라고도 하였다. 끈은 것에 소매가 넓고 무가 있고 트임이 있는 옷을 말하기도 하는데 뒷중심 솔기에 트임이 있는 것, 무의 옆선만 트인 것, 뒷중심 솔기와 무의 옆선이 모두

34) 유희경외, 「한국복식문화사」(서울 : 교문사, 1998), p. 245.

트인 것 등이 있다. 사대부가 외출할 때 입던 옷이었다<그림 21>.

중치막은 왕 이하 서민까지 두루 입던 옷으로 외출복이었으며 겹옷, 솜을 든 것, 누빈 것 등이 있고 깃은 곧으며 소매는 넓고 무는 없다. 겨드랑이부터 트여 안쪽 옷이 보인다<그림 22>.

도포는 사대부의 외출복, 제사복, 수의(壽衣)로도 입던 옷이다. 도포라는 말은 조선 1564년(명종19)에 처음 나오는데,³⁵⁾ 천민도 도포를 입었다고 나오듯 하층 계급에서도 몰래 도포를 입었다. 갑신의복개혁(1884년)때 소매 넓은 다른 포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1900년에 다시 관직이 없는 사람의 예복이 되었다.



<그림 21> 16세기 창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22> 대원군 중치막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23> 도포
(조선왕조복식, p.104)

(4) 단령(團領)

상복은 1426년(세종8)에 정해진 것으로 관리들의 사무복이었다. 국가의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했으며 색은 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다. 사모를 쓰고 단령, 대, 화로 이루어졌는데 대로써 품계의 등위를 가리다가 1454년(단종 2년) 이후에는 흉배로 상하를 가렸다.

신라의 당복(唐服)채용 후 백관공복(白官公服)이 당나라의 제도를 따르

35) 문화관광부, 「우리 옷 이천년」(서울 : 미술문화, 2001), p. 73.

게 된 후부터 이것을 단령이라 하여 백관들의 상복(常服)이 된 것이다. 단령이란 말은 둥근 것이라는 뜻인데 바지·저고리를 입고 곁에는 홍색 또는 북청색의 단령을 착용하였다³⁶⁾<그림 24, 25>.

초기의 형태는 고려 단령과 같았으나 국속화(國俗化)되어 옷깃의 과임이 둥글게 깊어지고 홀웃에 중단으로 받쳐 입던 것이 점차 겹옷이 되었다. 목은 허리부터 옆선이 터져 있고, 앞은 오른쪽으로 깊게 여미며, 깃은 매듭단추로 어깨에 고정시키고 가슴부분에는 가는 끈이 있었으나 점차 커져 세가닥 고름이 되었다. 긴 고름은 걸감과 안감으로 만들어 한곳에 달았다. ³⁷⁾

1895년(고종32) 8월 10일에 문관복장식을 반포하여 대례복, 소례복이 생겼으며 소매 넓이로 대례복, 소례복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상복인 단령이 혼례를 치를 때 계급의 차이 없이 신랑예복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집안의 벼슬과 품계에 맞도록 달던 당상관(堂上官)의 쌍학흉배(雙鶴胸背)를 혼례시 신랑예복의 흉배로 허용 하였다³⁸⁾<그림 26>.

36) 남상민, 전계서, p. 92.

37) 박경자, 「혼례복식에 관한 소고(小考)」(서울: 신구문화사, 1983), p. 215.

38) 문화관광부, 전계서, p. 65.



<그림 24> 홍색 단령 (앞·뒤)
(한국전통혼례, p. 92)



<그림 25> 청색 단령
(석주선 기념박물관)



<그림 26> 쌍학 흥배
(500년 조선왕조복식, p.116)

(5) 사모(紗帽)

고려말 우왕 이후로부터 백관(白官)이 상복에 착용하였던 관모(冠帽)로서 복두(幘頭)에서 비롯된 사모는 백관상복의 관모로서 모체(帽體)의 전면은 턱이 쳐서 2층으로 되어 있고, 뒤는 밋밋한데, 뒷중심에 붙어 양옆으로 뻗어나간 날개(脚, 翼) 모양이 붙어 있다<그림 27>.

국말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로 중국에서 변(弁)으로 이행하고 있을 때

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사모, 단령을 착용하여 이것을 의관문물의 표신으로 여겼다. 공복의 복두가 어느 사이에 사모로 변한 것이나 고종때 복장 개혁시 대례복, 소례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39)

(6) 각대(角帶)

백관의 관복에 두르던 띠를 총칭하여 각대라고 한다. 뿔 조각을 딱딱하게 만든 띠는 재료에 따라 각대라 부르며, 또 벼슬의 품계에 따라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품대(品帶)라고도 한다. 이 품대는 재료에 따라 직품(職品)을 표시하는데 신랑의 경우에는 서대(犀帶)를 띠었다.⁴⁰⁾ 각대 바닥은 가죽을 비단으로 싸고 그 위에 3줄이나 5줄의 금줄 혹은 검정줄을 그어 띠를 만들고 양끝을 장방형의 띠돈과 걸이쇠를 붙여 띠의 앞중심에 오도록 하고 그 양옆은 심엽형(心葉形)의 띠돈을 간격을 두어 붙이고, 뒷면에는 장방형의 띠돈을 연결해 붙였다⁴¹⁾<그림 28>.

(7) 목화(木靴)

혼례때 신랑은 목화를 신는다. 목화는 조선시대 중·후기 백관상복의 관복에 신던 신의 하나로 수화자(水靴子)라고도 한다. 바닥은 나무나 가죽이고 신목은 길고 걸은 흑색 우단이며 전(氈)이나 가죽, 융 또는 금단으로 씌우고 안은 흰색 융(絨)을 대었으며 슬기에는 홍색 선(褌)을 둘렀다. 형태나

39) 유희경 외, 전게서, p. 214.

40) 백영자, 전게서, p. 394.

41) 남상민, 전게서, p. 94.

장식에 일정한 규정이 없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⁴²⁾<그림 29>.



<그림 27> 사모
(석주선기념박물관)



<그림 28> 각대
(한국전통혼례, p. 94)



<그림 29> 목화
(석주선기념박물관)

2)신부예복

(1) 속곳

겉치마 속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너른바지, 단속곳을 입고 치마를 넓게 부풀려 주기 위하여 무지기를 입는다.

다리속곳은 가장 밑에 입는 속옷이라 인식되어 있다. 형태는 홑겹의 긴 감을 허리띠에 달아 입었다<그림 30>.

속속곳은 바지 밑에 입는 것으로 단속곳과 그 형태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치수가 단속곳 보다 약간씩 작고 바대나 밑 길이가 길었다. 속속곳은 살에 닿는 속옷이기 때문에 단속곳과는 감을 달리하여 부드러운 감을 사용하였다⁴³⁾<그림 31>.

바지는 치마 안에 입던 속곳으로 단속곳, 속속곳 위에 입었는데 남자의 바지와는 달리 밑이 따로 떨어져 있고 허리끈이 달려있다<그림 32>.

너른바지는 주로 상류계층의 정장용 밑받침 옷으로 단속곳 위에 입어 하

42) 백영자 외, 「한국복식의 역사」(서울 : 경춘사, 2004), p. 394.

43) 유희경 외, 「한국복식문화사」(서울 : 敎文社, 1998), p. 295.

체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속옷의 하나였는데, 이것은 단속곳과 바지를 겹쳐 놓은 것 같은 넓은 것으로 겹으로 되어 있었으며, 앞은 막히고 뒤는 트여 여미게 하였다. 밑은 따로 달지 않고 터지지 않도록 약 2cm 정도의 천을 달아 튼튼하게 만들었다. 4폭이나 되는 가랑이가 넓은 너른바지는 주로 양반계급에서 입었다⁴⁴⁾<그림 33>.

단속곳은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치마 바로 밑에 입던 속옷을 가리킨다. 단속곳은 오늘날의 속치마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모양은 한복 바지와 비슷하며, 밑에 바지를 입고 맨 밑에 속곳을 입었다. 옷감은 겨울에는 명주·삼팔·자미사, 여름에는 모시·항라·생노방 등을 사용하였다. 속속곳과 형태는 같으나 치마보다 다소 짧고 양 가랑이가 넓어 속치마 대용으로 입는다. 앞 뒤 중앙에서 안쪽으로 주름을 4~5개씩 잡아서 만들고 허리를 단다. 오른쪽에 트임을 주고 앞끈을 뒤로 돌려 앞으로 오게 하고 뒤 끈은 앞으로 가져다 서로 잡아맨다⁴⁵⁾ <그림 34>.

무지기는 겹치마를 부풀리기 위하여 속에 받쳐 입는 속치마로 서양의 패티코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른 속옷이 바지 일색인 것과 달리 가랑이가 달리지 않은 속옷이다. 길이를 다르게 한 모시 12폭 치마를 3합, 5합, 7합 등으로 겹쳐 한 허리에 달았다. 따라서 각층의 치마 길이가 달라 층층으로 보이며 각층의 끝부분만 은은하게 염색하였다. 각층의 밑단 부분에 홍색을 물들여 ‘연봉치마’라고도 하였다⁴⁶⁾<그림 36>.

44) 박성실 외, 「조선시대여인의 멋과 차림새」(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p. 114.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6) 박성실 외,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p. 152.



<그림 30> 다리속곳
(세계속옷역사전 p.17)



<그림 31> 속속곳
(세계속옷역사전 p.18)



<그림 32> 바지
(한국복식명품, p.198)



<그림 33> 너른바지
(세계속옷역사전 p.30)



<그림 34> 단속곳
(석주선 기념박물관)



<그림 35> 대숨치마
(세계속옷역사전 p.32)



<그림 36> 무지기치마
(경운박물관)

(2) 속적삼 · 속저고리

혼례시에 겨울에도 속옷으로 모시적삼을 입고<그림 37> 그 위에 분홍 속저고리를 입고<그림 38> 다시 삼회장 겹저고리를 입었는데<그림 39> 이를 저고리 삼작이라 한다. 모시로 속옷을 만들었던 이유는 모시옷이 시원한 것과 같이 한평생 속 시원하게 지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속적삼은 저고리 보다 치수가 약간 작고 고름 없이 매듭단추를 달았는데,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반드시 입었다.⁴⁷⁾



<그림 37> 속적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38> 속저고리
(세계속옷역사전 p. 36)



<그림 39> 삼회장저고리
(한국복식명품, p.192)

47) 박성실 외, 전게서, p. 15.

(3) 황유홍상(黃襦紅裳)

혼례시에는 노랑바탕에 자주 삼희장을 단 저고리를 입고 걸은 홍색치마, 안은 남색치마를 입었다.⁴⁸⁾ 노랑저고리는 흙을 상징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뜻이고 홍치마는 자손과 가운데 줄과 같이 왕성하리라는 뜻이 담겨있다<그림 40>.



<그림 40> 황유홍상
(박광훈의
침장기증도록,p.39)

(4) 염의(袖衣)

염의의 유래(由來)에 대해 「사례편람」에서 살펴보면, “옛날에는 혼례복에 염의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현의(玄衣)에 분홍색 단(훈연:纁緣)을 두른 것이다. 염의는 머리에는 쪽을 짓고 그 위에 비녀를 꽂고 혼인 때는 단에 홍색 선을 둘러서 입었지만 예식이 끝나면 단을 떼고 평상예복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차리는 집안에서는 염의(袖衣)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니 구습(舊習)이 변하여 다시 점차 옛으로 돌아가는 것인가⁴⁹⁾”라고 하여, 혼례복으

48) 이순자, “우리나라 傳統 婚禮와 現代 婚禮에 關한 研究,” 복식문화연구지, 3, 1(1995), p. 162.

49) 문화관광부, 「우리 옷 이천년」(서울: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p. 102.

로 현의(玄衣)에다 혼연한 염의를 입어오다가 50) 「사례편람」이 편찬된 숙종대(肅宗代) 전후에는 홍장삼으로 변모한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혼례복으로 염의가 입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태(形態)에 대한 기록으로는 「사례편람」에서는 “색(色)은 현색(玄色)이고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한데 붙었으며 옷감으로는 능기류(綾綺類)를 사용하였다. 안은 소사(素紗)로 하고 혼색(纁色) 연(緣)을 들렀으며 소매 길이는 지척(指尺)으로 2척(尺) 2촌(寸)이고 수구(袖口)는 1척(尺) 2촌(寸)이며 일명(一名) 순의(純衣)라고도 한다. 「예서」를 살펴보면 염의, 소의(宵衣), 연의(緣衣)는 모두 같은 것이며 제도(制度)의 근거(根據)는 현의에 불과한데 염의에는 혼연이 있을 뿐이다. 사부(士夫)의 처(妻)들이 입는 연의(緣衣)는 장문(章文)을 없애고 모방하여 만든 것 뿐이다. 지금은 이것을 참작하여 통용지복(通用之服)을 만들고 있는데, 시집갈 때는 연색(緣色)으로 옷 아래에 4~5촌 가량의 선을 둘러 이를 염의라 하였으며, 시부모(媿父母)를 뵈 때나 제사(祭祀)를 지낼 때 또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연을 떼고 착용하여 소의에 대신하였다”고 했다.⁵¹⁾

따라서 염의(衽衣)는 현의(玄衣) 심의(深衣)와 같고 옷감은 능기류를 사용했으며 색은 현색이고 상의와 하상이 한데 붙었으며 소매길이는 2척 2촌이고 수구는 1척 2촌 정도이고 4~5촌 가량의 혼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이에 염의의 현색과 혼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면, 고대 중국에

50) 柳喜卿, 「韓國 服食史 研究」(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 477.

51) 李緯, 「四禮便覽」 昏禮 醮女條, 1844, 전혜숙, “朝鮮後期 女子 婚禮服에 관한 研究”, 복식문화연구지, 10, 2(2002), p. 61에서 재인용.

서는 흑색(黑色)을 현(玄), 치(緇)라고 표현하며, 현색(玄色)을 흑색에 약간의 적(赤)이 섞인 것으로 분별(分別)이 없는 암중(暗中)에서도 광명(光明)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역치(易緇)」 문언(文言)에서 “천(天)은 현(玄)이다.”라고 하여 하늘은 심원하여 사소한 것이 보이지 않는 현색이라는 뜻이고⁵²⁾ 하늘의 색은 반드시 현, 즉 흑색 중에 약간 적색을 띤 색이며, 땅의 색은 반드시 혼, 즉 적(赤)과 황(黃)을 겸한 색으로 현(玄)은 천(天)을 상징하고 혼은 지(地)를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⁵³⁾ 이는 염의에서 현색은 양(陽)으로서 남(男)을, 혼은 음(陰)의 여(女)를 뜻하며 오늘날 청(靑), 홍(紅)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의는 검은 바탕에 분홍 연(緣)을 두른 것으로 검은색은 수기(水氣)로 음을 뜻하며 분홍색은 화기(火氣)로 양을 뜻한다. 음양상합(陰陽相合)과 수화상통(水火相通)의 원리를 취한 것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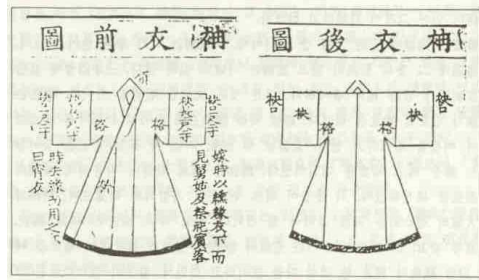
52) 李正玉, “朝鮮時代 冠禮復飾의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p. 80.

53) 박성실, 「중국복식사」 (서울 : 경춘사, 1992), p. 44.

54) 權五虎, 「衣裳과 陰陽五行學 2」 (서울 : 우리얼 우리문화, 우리문화 연구원, 1989), p. 19.



<그림 41> 염의
(우리옷이천년
p.102)



<그림 42> 염의도
(韓國傳統 婚姻考, p.206)

(5) 당의(唐衣)

당의는 예복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모양이 아름다운 옷으로 조선시대에서는 궁중 소례복(小禮服)으로 대례복(大禮服)속에 입었던 것이다.

궁중혼례복으로서의 당의는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례시 국말(國末) 「임년(壬年)가례시 동궁(東宮) 가례시의대」와 「한중록」에 “재간에 송화색 초도문단 당저고리. 보리도류단 당저고리 1건(件)”⁵⁵⁾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빈궁 후보는 삼간날에 당저고리를 착용한 것 같다.⁵⁶⁾ 또한 비빈 이외 회명부인 내시(會命婦人 來時)에 광해군(光海君) 3년 5월과 선조 35년 인목대비 가례시에 착용하였다. 의궤(儀軌)에서는 당의라는

55) 李順洪, 전계서, p. 239.

56)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서울 : 一志社 1987), p. 228.

의복명은 찾을 수 없고 색은 자(紫), 초록(草綠)으로 당의색(唐衣色)과 일치하며, 안감도 당의와 같은 홍색이 어느 저고리에나 사용되고 있으니, 이후 저고리나 겹저고리가 당의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57)

서민의 당의는 「거가잡복고」에 “당의라는 것은 당대(唐代)의 편복(便服)인 듯한데 우리나라 풍속이 우연히 이것을 본받아서 입었기 때문에 당의라고 이름 한 듯하다.”고 되어 있듯이 활옷, 원삼 등과 마찬가지로 당(唐)의 복식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의의 특징은 한복의 곡선미를 강조한 데 있었으며, 소매 끝에는 창호지로 속을 넣은 흰색의 거들지가 있었고, 당의의 앞쪽 중앙에는 자주색으로 된 안고름, 겹고름이 달려있었다. 궁중 당의에는 이밖에도 직분을 알 수 있는 금박문양과<그림 44> 금실로 수를 놓은 보(補)가 달렸었지만<그림 43> 일반서민에게 허용된 당의는 민당의로 이러한 것은 일체 금지되었다.<그림 45, 46> 당의의 길이는 1척 5촌(70.2Cm)정도지만, 신부의 당의는 1척 3촌(60.84Cm)으로 특히 신부 당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써 조선후기에 혼례시 당의가 착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길이가 짧은 것은 조혼의 혼례풍속으로 신부들이 성장기의 소녀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58)

또한 박경자의 「한국의 혼속연구」에 의하면 민가에서 착용된 당의는 “폐백의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연두결마기 다홍치마 12폭 대무지기 8폭, 풍무지기 6폭, 연봉무지기, 소무지기, 모시, 분홍 속적삼, 노랑 속저고리와 저고리 삼작과 당의, 원삼을 준비 하였다가 입히고 시댁에서 주는 것은 예

57) 趙孝順, “朝鮮朝 婚禮服 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집(1997), p. 56.

58) 趙孝順, 앞의 글 p. 57.

물, 대삼작, 소삼작을 차고 처음으로 낭자 족두리를 하고 인사를 하게 한다. 이때 어른께는 원삼을 입고, 동향에게는 당의를 입고 절을 한다.”고 하여 폐백이 끝난 뒤 원삼 다음 가는 예복으로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당의를 혼례복으로 입을 때는 활옷, 원삼 등을 입을 때처럼 속옷을 갖추어 입은 뒤, 치마, 저고리 위에 이 옷을 입게 되어 있었다. 당의를 입은 다음에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옷고름에는 노리개를 찼다. 이런 당의는 활옷이나 원삼처럼 웅장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간편하고 감쪽한 느낌을 주어 조선조의 일반인들 간에 많이 착용된 혼례복의 하나였다.⁵⁹⁾ 그렇지만 활옷이나 원삼이 고례(古禮)를 중히 여기는 일부 가문에서 배척되었듯이, 당의 또한 “소매가 좁고 그 길이가 겨우 배를 가릴 만하여 품위가 없는 데다 예에 근거가 없다.”하였다.⁶⁰⁾



<그림 43> 의왕비당의
(경운박물관)



<그림 44> 덕혜공주당의
(의, p.94)

59) 김지현, “근세 한·일 혼례복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2002), p. 36.

60) 조효순, 「朝鮮服飾 風俗史」(서울 : 일지사, 1988), pp. 144~146.



<그림 45> 당의
(의, p.103)



<그림 46> 당의
(한국복식문화사, p.283)

(6) 활옷

활옷은 조선시대 왕실 사대부 여자의 예복이었으며 후기에는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다.⁶¹⁾ 활옷은 홍장삼이라고도 불렸으며 공주나 옹주의 대례복이었던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일생에 한번뿐인 혼례시에 서민들에게도 허용되었던 것이다.

활옷은 신라 때부터 입혀져 온 중국제의 의복이다. 우리나라가 고대의 북방형(北方型) 복제를 버리고 중국복제를 따르게 된 것은 신라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2년, 김춘추(金春秋)가 당에 청병(請兵)하러 갔을 때 당 태종(太宗)에게 장복(掌服)의 개혁을 청하여 중화(中華)의 제(制)에 따르고자 하여, 의대(衣帶)를 사여하고 이를 허(許)하였고, 먼저 문(文)·무(武) 백관의 제도를 따르고, 이어 제 30대 문무왕 4년에 이르러 여자의 의복제도도 개혁하기에 이르렀다.⁶²⁾

그 후 고려대(高麗代)에 들어와서도 의복제도는 신라제도와 중국제도를 그대로 습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삼국사기」를 보면 “..송(宋)의 사신

61) 이순자, 앞의 글, p. 163.

62)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第二, 色服條

인 류규(劉逵), 오식(五拭)이 고려에 왔을 때 연회에 초대되어 창녀(娼女-女樂工)들이 입고 있는 활수의(闊袖衣)에 색사대(色絲帶)와 대군(大裙)을 보고 감탄하기를 ‘이것이 모두 3대의 복색인데 아직도 여기서 행해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⁶³⁾고 했다.

고려 인종(仁宗) 원년(元年-1122) 송사(宋使)로 왔던 서공(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왕비 부인은 홍색을 숭상하여 더욱 그림과 수를 더하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고 하니⁶⁴⁾ 지금 현존되는 도경은 없으나 그림과 수를 더한 홍의(紅衣)가 활옷의 고제(古制)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박규수의 「거가잡복고」에는 “지금 풍속에 딸이 시집가려 할 때 하는 복식은 ..홍장삼이란 것이 있는데 붉은 비단을 바탕으로 해 두루 연꽃으로 가득히 수놓아 그 제도는 비록 화려하고 곱지만 그 넓이와 흩어진 머리로 한 몸을 덮을 뿐이다. 이것으로 합근례를 하고 구고(舅姑)를 배알 하지만.., 지금 혼인 때 부복(婦服)의 가계(假髻)·홍삼(紅衫)은 대군왕자(大君王子)의 처인 외명부일품복(外命婦一品服)인데 혼례는 성대(盛大)하게 행하는 것은 고례대로 하는 것으로 모두 고례대로 이 옷을 입는 것은 사서인(士庶人)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⁶⁵⁾라고 하여, 조선후기에 와서 사대부, 서민의 처가 혼례, 견구고례시(見舅姑禮時)에 입는 연꽃이 수놓인 홍장삼, 즉 활옷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63) 金富軾, 「三國史記(下)」李丙熹譯註, (서울 : 乙酉文化史社, 1986), p. 168.

64) 고전국역총서119, 「高麗圖經」(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 1986), p. 126.

65) 조효순 역, 「居家雜服考 內服條」(서울 : 도서출판 석실), p. 159.

위의 기록들을 보면 활옷으로 짐작되는 복식의 명칭과 그 표현이 백화포(白花袍), 홍의(紅衣), 활의(豁衣), 할의(割衣), 홍장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당에서부터 전래된 활옷이 오랜 역사를 통해 근세에 이르는 동안 그 명칭과 제도면에서 우리의 것으로 국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옷의 형태와 구조를 보면 소매가 넓고, 뒷길이 앞길보다 약 20Cm 가량 길며, 등솔기를 가르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옷 구조 중에서 등솔기를 바느질하지 않은 옷은 활옷뿐인데 이는 뒷길에 수를 놓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대 밑에 반원 모양의 백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수구의 한삼 위에 붙인 백지와 더불어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옆선은 겨드랑이 밑부터 터져 있어 앞·뒷길이 따로 달려 있다. 그리고 뒷길 도련 중앙에 수모가 옷을 부약하기 위해 잡아준 것으로 보이는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8, 49>. 활옷은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고대를 막고 동정을 달았다. 동정 밑에 작은 고름을 달아 앞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매는 직선배래로 황(黃), 남(藍), 홍(紅)의 색동과 흰 한삼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삼부분에는 수를 놓기도 하였다⁶⁶⁾<그림 49>.

66) 이순자, 앞의 글, p. 163.



<그림 47> 복온공주 활옷
(한국복식명품, p.162)



<그림 48> 민간활옷
(고려대학교 박물관)



<그림 49> 왕실용활옷(앞·뒤)
(석주선기념박물관)

활옷에 쓰여진 기본색조(基本色調)는 겉은 홍색, 안은 남색으로 홍색과 남색이 지닌 의미는 <표 4>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활옷에 주로 쓰여진 문양(紋樣)의 종류(種類)로는 동물문(動物紋), 식물문(植物紋), 자연문(自然紋) 등이 있다. 이는 십장생문(十長生紋), 길상어문(吉祥語紋), 장식적(裝飾的)인 실문(實紋)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문양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표 5>와 같다.

<표 4> 활옷의 구성 색이 가지는 의미

색	의미
홍색 (紅色, 多紅色)	복색(服色)에서 홍색(紅色)은 적색(赤色)과 마찬가지로 고위층의 복색(服色)으로 사용되고 고복(古服)의 색으로 선호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생명(生命)의 색, 생기(生氣)의 색
남색 (藍色)	생명을 상징하고 발전·창조·신생·불멸·희망 등을 의미하는 색으로 이용
홍색과 남색의 조화	남녀(男女)를 남색, 홍색으로 하여 혼례식에서는 청실홍실이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음양의 관념으로 청(靑)은 남(男), 홍(紅)은 여(女)를 의미하여 사용 이것은 청색의 목(木)과 홍색(紅色)인 화(火)가 상생(相生) 작용인 목생화(木生火)하여 활옷의 표리(表裏)로 상생(相生)을 의미

<표 5> 활옷에 나타난 문양의 의미

문양	의미
연화문 (蓮花紋)	활옷의 뒷길에 수(繡)놓아 있는 것 건강, 장수, 불사, 행운, 군자 및 다남(多男)·연생귀자(連生貴子) 상징
봉황문 (鳳凰紋)	봉(鳳)과 황(凰)은 은밀한 성적 결합을 암시 혼례가 지니는 중대한 의미와 함께 한 가문의 신부의 부덕과 인격을 통해 영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
모란문 (牡丹紋)	꽃 중의 왕(花王), 부와 명예의 꽃(富貴花) 화려함으로 부귀(富貴)를 바라는 문양
천도 (天桃)	복숭아는 대추와 함께 자손 번창의 의미 신선계의 열매인 천도복숭아의 문양과 그림은 봄과 장수를 뜻함
불수 (佛手柑)	불수감(佛手柑)은 부처의 손처럼 생각되어 상서로운 식물로 여겨짐 다복(多福), 다수(多壽), 다남(多男)의 상징
국화 (菊花)	칭초하고 고결함, 지조(志操)가 높고 깨끗한 선비 또는 군자(君子)의 기상(氣象)을 상징 도교의 신선 지향 사상과 연결
석류 (石榴)	일명 사금대(砂金袋) : 자손의 번창을 염원 다산(多産), 다남(多男)의 상징
십장생문 (十長生紋)	일(日), 월(月), 산(山-石), 수(水), 송(松), 죽(竹), 불로초, 귀(龜), 학(鶴), 녹(鹿), 천도(天桃), 신선(神仙)등이 주 문양 도교의 민간 신앙과 함께 장생(長生)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
백로문 (白鷺紋)	한 쌍의 백로가 등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음양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은연중에 표현된 것
호접문 (胡蝶紋)	나비를 모란(牡丹)과 더불어 수(繡)놓은 것 금슬이 좋음을 상징
까치	길작(吉鵲, 또는 회작), 부부화합과 가내부귀를 염원 혼인의 길함과 영화를 바라는 무속적 주술 문양
쌍어문 (雙魚紋)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 보고 있는 문양 인도, 중국, 중동지방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문양 안녕을 비는 부적, 금슬 좋은 부부, 다산(多産), 혹은 성적 조화를 상징
길상어문 (吉祥語文)	주로 쓰인 어구(語句)는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오래 살고, 복 받고,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현세구복적(現 世求福的)인 주문

(7) 원삼(圓衫)

원삼은 대표적인 예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금형의 맞깃과 넓은 소매에 색동과 한삼이 달리며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으로 혼례복에서는 녹색이 주류를 이룬다. 원삼은 조선시대에 황후와 비, 빈의 소례복이자 내(內)·외명부(外命婦)의 대례복으로 착용되었다.⁶⁷⁾ 계급에 따라 왕비의 홍원삼, 비빈(妃嬪)의 자적원삼(紫赤圓衫), 공주(公主)·옹주(翁主)·반가(班家)의 초연원삼(草緣圓衫)이 생겼다.⁶⁸⁾ 이중 초록원삼은 서민층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다.⁶⁹⁾ 직물은 겨울에는 단(緞)을, 여름에는 사(紗)를 사용하였다.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⁷⁰⁾를 보면 “활수의(闊袖衣), 색사대(色絲帶)가 이 기록에서는 부인의 예복이 활옷과 원삼같은 예장(禮裝)이 아니었나 하며 그것은 당의의 옛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당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시대에도 착용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례원류(家禮源流)」에는 “부인의 대수(大袖)가 원삼인데 속칭 장오자(長襖子)라고도 한다.”고 했다. 「사례편람」에는 심의와 연의(緣衣)가 여자의 예복인데 속제(俗制)로 원삼을 입었고, 여자의 습의(襲衣)로도 심의, 연의, 원삼을 입었다.⁷¹⁾ 고 하였다. 제조(祭條)에서는 “대의(大衣)는 색수(色袖)로써 만들며, 그 제도는 속칭 당의(唐衣)와 같고, 넓고 크다..일명(一名)

67) 박경자, “우리나라 婚禮服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2(1969), p. 204.

68) 박경자, 전게서, p. 220.

69) 김지현, 전게서, p. 35.

70) 李緯, 「四禮便覽」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色服 新羅條.

71) 李緯, 「四禮便覽」 卷三 喪, 陳襲衣條.

대수(大袖) 또는 원삼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원삼은 옷의 깃이 목 앞에서 둥근데서 온 이름인데, 그와 같은 뜻으로는 환삼(環衫)이나 단삼(團衫)이 사용되고 있고,⁷²⁾ 단삼은 조선 초기에 명(明)나라에서 사여(賜與)한 왕비관복(王妃冠服)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중·후기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도 단삼과 원삼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삼과 원삼은 같은 것은 아니고 원삼이 단삼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일반적인 원삼의 형태는 대금형의 맞깃과 넓은 소매에 색동과 한삼이 달린 전단후장형으로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⁷³⁾ 황실을 비롯하여 궁중 여관(女官), 반가의 원삼류는 깃머리가 둥근 대금형 맞깃을 하고 넓은 두리 소매에는 두 줄의 색동이 달린다. 일반인의 원삼에는 방령깃의 모양이 함께 보이며 색동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차이를 보인다. 안감 도련에 남색선을 두르지 않았으며 어깨와 도련에도 금박을 찍지 않은 소박한 형태를 보인다.⁷⁴⁾ 또한 공주 옹주의 원삼이나 궁에서 하사한 원삼 즉 궁에서 제작된 것은 금직이나 금박이 있으나 민간용 원삼에서는 금박이 없으며, 색동이 넓고, 옷고름과 깃의 색이 홍색 또는 자주색이다⁷⁵⁾<그림 53, 54>.

깃의 밑단은 당의와 비슷하게 귀가 나간 경우와 직선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래된 것일수록 밑단의 귀가 나간 형태이고 말기에 가까울수록

72)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서울: 一朝閣, 1986), p.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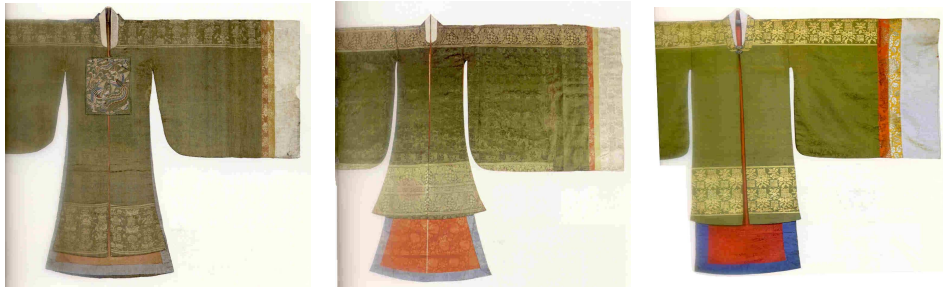
73) 전혜숙 외, “朝鮮後期 女子 婚禮服에 관한 研究”, 복식문화연구, 10, 2(2002), p. 170.

74) 박성실 외, 전개서, p. 214.

75) 전혜숙 외, 앞의 글, p. 171.

민간용 원삼인 경우 밑단이 직선의 형태이다<그림 50, 51, 52>.

원삼에는 허리에 대대(大帶)를 띠었다. 한지를 두겹게 접어 삼지로 사용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봉대(鳳帶)라고 기록되어 있다. 봉대의 안쪽에는 가슴너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작은 끈이 좌우에 달려 있는데 봉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50>16c이단하부인원삼 (한국복식명품, p.83) <그림 51>17c화순옹주원삼 (고려대학교 박물관) <그림 52>19c초록직금원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53>민간원삼 (경운박물관)



<그림 54>민간녹원삼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민가의 혼례복으로 착용된 녹원삼을 이루고 있는 색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녹원삼의 구성색이 가지는 의미

색	의미
녹색 (綠色)	‘푸르다’라는 의미 속에 청색(靑色)과 녹색(綠色)이 혼용되어 사용 청(靑)은 동쪽의 색이고 동쪽은 해돋이, 밝음, 맑음과 연관되어 있어 신생과 약동하는 힘을 상징하며, 승화와 피안의 빛으로 추월, 희망을 상징 목(木)과 화(火)가 상생(相生)이 되어 장수하고 부귀가 충만하도록 기원하는 뜻
색동	색동은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어린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한다는 뜻 에서 비롯됨 미적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색(正色)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간색(間色)을 섞어서 이행을 부드럽게 함 밝은 면이 강조된 양성(陽性)이 왕성한 색상으로 인식되어 ⁷⁶⁾ 벽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

(8) 화관(花冠),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로 신라 문무왕 때 중국의 복식이 들
어오면서 함께 전래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귀족과 양반계급의 부녀자 예복에 쓰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크기가 작아져 머리에 쓰는 관모라기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 엷는 수식(首
飾)이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부녀자의 머리모양이었던 가채(加軼)가 사치로 인한 폐가
많자 영조와 정조 양대에 걸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가채에 쏟았던 사치는 다시

76) 임동권, “민속상으로 본 색채 관-적(赤)·청색(靑色)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7호, (현대문학사, 1956),
p. 224.

화관이나 족두리를 주옥금패(珠玉金貝)로 장식함으로써 그에 따른 폐가 심하였다.⁷⁷⁾

화관은 여성용 예모(禮帽)의 일종으로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⁷⁸⁾

화관에는 칠보로 장식한 칠보화관과 구름무늬를 새겨 만든 운관(雲冠)이 있었다. 족두리보다 높이가 높으며, 두꺼운 종이에 무늬를 새기고 검정칠을 한 뒤, 가장자리를 도채부금(塗彩傅金)하고, 위를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화관의 양옆에는 비녀(족두리 비녀)를 꽂게 되어 있다<그림 55>.

족두리는 조선 후기 여성용 예관의 하나로 화관과 함께 부녀자의 예복에 갖추어 썼다. 원삼 또는 당의와 함께 착용하였으며, 궁중에서는 의례용으로, 민간에서는 혼례식 등의 대례에 사용하였다. 위, 중앙, 옆면에 옥석으로 꾸민 것은 꾸민족두리라고 하고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은 민족두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혼례의 신부는 화려하게 다섯 개의 봉을 세운 오봉 족두리를 많이 썼다<그림 56>. 정수리의 원형 공단에 사다리꼴 공단 7쪽을 이어 만든 솜족두리가 있고<그림 58>, 몸체에 솜을 두지 않고 측면이 각이 지도록 만든 각족두리가 있다<그림 57>. 조선 말기에는 가문에 따라 족두리의 형태가 달랐다고 한다.⁷⁹⁾

77) 유희경 외, 「한국복식문화사」(서울 : 敎文社, 1998), p. 260.

78) 박성실 외, 전게서, p. 168.

79) 박성실 외, 전게서, p. 166.



<그림 55> 화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56>오봉족두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57>족두리
(의, 87)



<그림 58> 솜족두리
(국립민속박물관)

(9) 땡기

땡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미혼녀는 ‘변발수후’하여 이를 채식하였다 했으니, 이는 곧 땡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에는 반드시 미혼녀만이 그 변발수후에 드린 것은 아니며, 부녀자들도 머리를 수발하기 위해 엷은머리나 쪽진머리에 이것을 사용하였고, 또 장식만을 위한 것도 있었다.

반가에서 혼인이나 대소 의식 때 사용한 땡기로는 큰땡기와 앞땡기가 있다. 큰땡기는 도투락땡기라고도 하며 머리 뒤에 덮어 길게 늘어 장식하였고, 혼례시에는 이와 짝을 지어 앞땡기를 드리웠는데, 혼례복 이외의 다른 예복에는 앞땡기만 착용하였다.

큰댕기는 활옷을 입었을 때의 뒷댕기를 말하며 주렴(珠簾)이라고도 했다. 검은 자줏빛 비단이나 사로 만드는데, 나비는 10cm 정도이고,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약간 짧고 두 갈래로 되어 있으며, 금박을 하였다. 그리고 뒤에는 석웅황(石雄黃)이나 옥관을 달고 밑에도 석웅황 또는 밀화(密花)나 금구(錦具)의 매미 5마리 정도를 달아 두 갈래의 댕기를 연결해 주었다<그림 59>. 그러나 남북도 지방에서는 금박 대신 비단 색실로 장식하고 자잘한 칠보(七寶)꽃을 화려하게 둘레로 둘러 붙이기도 했다<그림 60>. 이 큰댕기는 도투락댕기라고도 하여 궁중이나 반가에서 신부가 그 예장에 사용하였다. 서북지방에서는 혼례 때 이와 비슷한 ‘고이댕기’가 있어 이를 사용하였다.⁸⁰⁾

새색시가 쪽머리에 용잠을 꽃고 뒤에는 도투락댕기를 덮어 느리고 앞에는 기다란 용잠의 양 끝 여유분에 앞댕기를 한두 번 감아 적당한 길이로 늘어뜨렸다. 걸감은 검정 갑사이지만 붉은색 안감을 대어 검은 자주색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한 쌍의 봉황과 길상 문자를 부금(附金)하였고, 댕기 끈에는 박쥐와 봉황, 천도, 상동자 등을 부금하며 끝에는 산호와 진주 줄로 장식하였다⁸¹⁾<그림 61>.

80) 유희경외, 전계서, p. 256.

81) 박성실 외,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p. 222.



<그림 59>
 땡기(우리
 규방문화,
 p.101)



<그림 60>
 도투락땡기
 (의, p.93)



<그림 61>
 앞땡기
 (한국복식명품,
 p.222)

(10) 운혜(雲鞋), 당혜(唐鞋)

조선시대 부녀자가 신던 갖신을 말한다.⁸²⁾ 혜는 운두가 낮은 단요형(短緣形)의 신을 일컫는데 혜의 기원을 문헌에서 보면 부여의 혁탐(革藥), 마한의 초교(草棺)·초리(草履)·혁교탐(革棺藥)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초혜로서 짚신이나 미투리·가죽신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신목이 없는 모든 신발은 '혜'라는 용어로 통일된다. 조선시대 여자의 신으로는 운혜·당혜 등이 있었는데 운혜는 여염집 부녀자가 신었고 당혜는 양갓집 부녀자가 신었다. 신코와 뒷축에 구름무늬가 있는 것을 운혜(운혜溫鞋)라고 하고<그

8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2천년」(서울 : 신유, 1997), p.143.

림 62, 63>, 신고와 뒤꿈치에 당초문(唐草文)을 놓아 만든 마른 신은 당혜라고 한다. 당혜는 장식된 덩굴문의 회장(回粧)에서 유래한 명칭⁸³⁾으로, 안은 융 같은 폭신한 감으로 하고 거죽은 가죽을 비단으로 짜서 만들었다<그림 64, 65>.



<그림 62> 운혜
(고려대학교 박물관)



<그림 63> 운혜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64> 당혜
(석주선 기념박물관)



<그림 65> 당혜
(국립민속박물관)

3. 전통혼례의 변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전통혼례는 유교사상이 유입되어 그 사상이 반영되기 시작한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⁸⁴⁾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사례편람」에 의한 전통혼례는 갑오경

83) 박성실 외, 「조선시대여인의 멋과 차림새」(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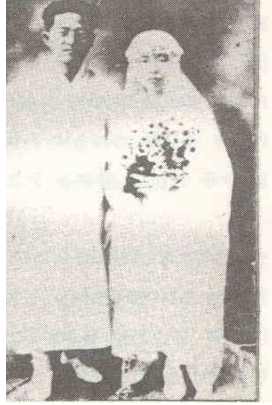
84) 강정립, “한국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0), p. 20.

장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통혼례는 19세기말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는 전통 혼례복은 서구식 혼례복을 본격적으로 선호하게 되면서 서구식 혼례식을 마친 후 폐백 시에 착용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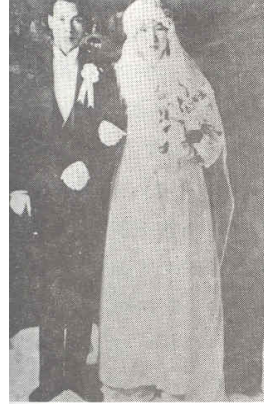
전통적인 혼례가 서구식으로 바뀐 것은 개화기 이후의 일로써 미국 선교사들과 연관이 있는 기독교 가정이나 서구 문물을 접한 가정에서 연미복을 입은 신랑에 화동을 대동한 신식 혼례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한일 합방 이후에도 신식 혼례는 늘어나서 1930년대 이후엔 예식장에서 거행하는 신식 혼례가 서울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퍼졌다.

신식 혼례식에서 신부는 흰 저고리에 정강이 길이의 흰 통치마를 입고 흰 스타킹과 구두, 그리고 눈까지 덮는 흰 면사포를 썼지만 신랑은 흰 모시두루마기를 입었으며<그림 66>, 대부분은 흰색의 긴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하였다<그림67, 68>.

85) 은영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科學論集, 26, 1(2000), p. 88.



<그림 66>
황신덕씨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51)



<그림 67>
박사라씨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51)



<그림 68>
송정임씨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54)



<그림 69>
1934년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54)

대도시에서 혼례식의 대부분이 신식 즉 서양식으로 치루어지면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흰 한복에 베일은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베일을 넘겨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아기자기한 꽃장식을 한 화관으로 고정시키는 스타일이 등장했다<그림 70>.

1937년에는 양초를 녹여 만든 굴꽃 장식의 화관과 면사포가 최첨단의 결혼 치장으로 등장하기도 했다.⁸⁶⁾ 이러한 모습은 50년대까지도 매우 일반적인 신식혼례의 모습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1960년대 이후에 보편화되었다<그림 71>.

혼례 · 상례 · 제례 · 회갑연등의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제정한 의례준칙의 발표로 관례를 제외한 혼상제례가 전통적 의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대폭 간소화되었다.⁸⁷⁾ 또한 전통혼례의식만이 아니라 사원이나 교회당에서 올리는 혼례에 대한 규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그 때의 복식은 전통복식과 양복까지 규정<그림 69>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즈음에 혼례라는 용어도 일본식 용어인 결혼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⁸⁾

의례준칙으로 간소화된 혼례절차는 의혼 · 납채 · 납폐 · 친영으로 더욱 간소화되었다. 의혼이란 중매를 통해 신부집과 혼례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는 단계였으나 연애결혼의 증가로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여자집에서 허락하면 신랑집에서 납채서를 보내는데, 이 단계가 납채이며 오늘날에는 약혼에 해당한다. 납채시의 복식에 대해 조선시대에는 별도로

86) 김유경, 「옷과 그들」 (서울 : 삼신각 1994), p. 246.

87) 이은주, 「전통의례복식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도서출판 신유, 서울 : 1996), p. 229.

88) 은영자, 전게서, p. 93.

그 의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상시와 같은 복식을 하였다고 여겨지나 오늘날에는 집안에 따라 자유로이 하되, 신부들은 대개 분홍색 한복을 입거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양복을 입는다. 오늘날에도 납폐는 함보내는 행사로 남아 있으며 이날에도 신부들만이 대개 한복을 입지만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70>
1930년대 후반
(옷과 그들, p.247)



<그림 71>
1960년대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59)

한편 전통혼례에서는 혼인 하루 전날 전안례를 치르고 다음날 계속 교배례와 합근례를 치르는데 오늘날에는 혼례 치르는 곳이 예식장으로 바뀌고 그 의식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이렇게 신식혼례는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그 의미가 상실된 부분이 많지만 현구고례(見舅姑禮)는 지금까지 폐백이란 형식으로 남아 있다.

현구고례란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가친척에게 처음으로 큰 절을 올리는 의식으로 신부가 음식을 준비해 시댁에 가는데 이를 폐백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친척이 결혼식후 한자리에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혼례

당일 예식장 폐백실에서 전통복식을 입고 의례를 치루게 되는데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통의식이다.

갑오경장(1894)년 이후의 역사적·사회적 변천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후기 (1890년대)

조선후기는 흐트러진 문물의 제도적 재정비와 사회적 혼란속에 유교적 예학이 강조되고 예제가 발달하고 사대부층에서는 주자가례에 준한 우리나라 혼례의 이상형을 닮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인 관행은 서유부가혼(婿留婦家婚)이었으며, 불교는 나름대로 민심을 장악하여 교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민간에서 널리 신봉된 것은 도참신앙(圖讖信仰)·무속신앙(巫俗信仰)이었다.⁸⁹⁾

조선후기에 허용된 혼례복으로는 신랑은 백관복의 하나이며 상복에 속하는 단령과 사모였으며 신부의 경우, 사서인의 여자혼례복으로는 염의, 활옷, 원삼을 들 수 있다. 이중 염의의 옷감은 능기류를 사용했으며 색은 흰색이고 상의와 하상이 한데 붙었으며 혼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를 차리는 사대부집안에서 만들어 썼다고 한다. 활옷과 원삼은 당의 제도가 신라에 전래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근래에 이르는 동안 다분히 국속화 한 것으로 보인다. 원삼은 조선후기 황후, 비, 빈의 소례복으로 내·외명부의 대례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착용자에 따라 원삼의 색이 달랐다. 사서인의 혼례에는 초록원삼을 착용하였으며 민간용 원삼에는 금박이

89) 전혜숙, “조선후기 여자 혼례복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 2(2002), p. 175.

없고 색동이 넓으며 옷고름과 깃의 색이 홍색 또는 자주색이었다. 혼례복의 색은 음양의 조화에 맞추어 정함으로 혼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장식성을 높이고 의미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행사상이 조선후기 사회 전반에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혼례는 종교적인 의례였으며, 인륜지대사이며 혼례시에 착용하게 되는 혼례복 또한 상징적 표식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혼례복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종교관과 사상, 가부장제도의 사회질서를 엿볼 수 있다.

2) 1890년대(갑오경장) ~ 1944년

갑오경장이후 전통혼례가 예배당결혼, 개량결혼 등 신식결혼으로 변화되어 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전통혼례의 풍습이 쉽게 바뀌지지는 않았다. 신랑은 사모에 단령, 신부는 족두리에 녹원삼을 입었는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개편되어감에 따라 혼례에도 그 노력이 시도되었다. 조선말의 개화와 함께 번진 기독교의 전파는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통로가 되었는데 혼례복도 예외가 아니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은 한국고유의 얼과 풍속을 말살시켜 일본화 하려했는데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 무렵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한복을 입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본의 단발령 강행으로 상투를 자르고 초립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신식결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일게 되었다.

1920년대는 여성 교육 진흥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개화에 눈을 뜬 시기이다. 1910년대에 위축되었던 양장 착용도 다시 성행되었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양장의 착용을 권하는 등의 동향이 결혼식에서도 나타나게 되면서 신식으로 올리는 결혼이 유행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전통혼례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식결혼은 신문기사가 될 정도로 희귀한 것이었다.⁹⁰⁾

1930~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고유의 풍습을 말살시키려는 일본의 계획 하에 한복 착용을 금하고 여학교의 교복까지도 양장으로 바꾸도록 하였다.⁹¹⁾ 이 무렵 신식 결혼은 더욱 많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혼례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모습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72> 1935년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이후-해방전후,
p.26)



<그림 73> 1940년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이후-해방전후,
p.28)



<그림 74> 1942년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이후-해방
전후, p.28)

북한지방의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이며 사모 안에 복건을 쓰고 차선을 들거나 한삼으로 손을 가렸다. 신부는 고된 시집살이가 쉽게 풀리라는 바램에

90) 은영자, 앞의 글, p. 91.

91) 강정립, 전게서, p. 25.

서 얇은 비단으로 만든 청·홍 치마를 겹쳐 입었다. 머리에 커다란 대죽
잠을 꽂고 반대편에 용잠을 꽂아 조화를 이루었다. 색색의 꽃과 보석 모을
사로 장식한 화려한 모양의 족두리를 썼으며, 진주가 장식되어 있는 진주첩
1쌍을 쪽머리 위로 달고 오색견사로 수놓인 고이댕기는 비녀머리쪽에 길게
내려 주었다. 등뒤로는 금박과 보석으로 장식한 도투락 댕기를 달고 귀에는
모두 귀고리를 하였다. 허리띠에는 은으로 된 5작 노리개를 탐스럽게 걸어
줌으로써 화려하게 성장하였다. 모두 한삼으로 손을 가려주었다.⁹²⁾

3) 1945년~ 1960년

서구사상의 도입시기이다. 일제시대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정치적으로
미군에 의한 통치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
민들 사이에는 서양풍조가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어 서구생활을 동경하고 모
방하게 되었다. 이런 서양풍조의 확산이 자유연애의 파급에도 기여하여 혼
례문화도 서구식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⁹³⁾

1950년대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서구문물이 직접적으로 수용되어 서구생활양식이 나타나 변화하게 되었고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신식결혼식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고 전통혼례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⁹⁴⁾

92)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이후-해방전후」 (서울 : 현암사, 1998), p. 26.

93) 장하경,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1(1996), p. 147.

94) 은영자, 앞의 글, p. 96.



<그림 75> 1948년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
개화이후-해방전후, p.46)

4) 1961년~1970년

이 시기의 사회적 특징은 대규모 공장제 생산, 자본주의, 경제우선의 사회, 인구의 도시집중, 대중매체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산업화 과정은 서울을 변모하게 하였으며 전통 사회와는 다른 구조로 변화하게 하였다. 1961년부터 정부에서 주도한 ‘의례준칙’과 1969년 정부가 공포한 검소와 간소화를 장려하는 ‘가정의례준칙’은 지방에 따른 생활문화의 고유성이나 특성을 점차적으로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⁹⁵⁾

1960년대 까지도 전통 혼례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서구식 혼례복으로 옮겨가게 되는 획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의 혼례복에서 서양의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고<그림 77> 결혼식도 전용예식장에서 올리는 일이 보편화 되었다.

95)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서울 : 집문당, 1995), p. 71.



<그림 76> 1965년
(사례복의 전망과 발전, p.37)



<그림 77> 1965년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61)

5) 1971년~1980년

이 시기의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시기였지만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풍요로움을 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생활문화는 서구적·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평생의례를 통해 길러진 생활정서가 차츰 소멸되기 시작했다. 또 1977년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에게 부모의 강요나 간섭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선택에 의해 결정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서구적 성격의 개인주의적 결혼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60년대의 화려한 결혼식의 여파로 ‘가정의례준칙’을 규정하게 되면서 단정하고 간결한 옷차림의 혼례복을 권장하면서 신랑이 한복을 입는 경우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고 규정짓는 일도 생겨났다. 96) 신부의 서양식 드레스가 다양해지고 신랑은 남성복의 전형적인 형태가 혼례복으로

96) 은영자, 앞의 글, p. 98.

입혀지게 되었다<그림 78, 79>.



<그림 78> 1974년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
스의 근대사적고찰,
p.66)



<그림79> 1979년
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
스의 근대사적고찰,
p.66)

6) 1981년 이후

1980년대는 이념에 대한 지형이 크게 변화된 시기이다. 남녀 양성평등적인 방향을 지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소비품의 급격한 발달로 모든 일을 손수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보다 간편화된 생활이 가능해지고 이런 양상들이 상품화나 소비조장 또는 흥미위주 등의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개인이 갖는 생활 가치관은 주장과 개성이 강한 진보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편한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⁹⁷⁾

97) 강정립, 앞의 글, p. 14.



<그림 80>
1985년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69)



<그림 81>
1986년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69)



<그림 82>
1987년결혼식
(신부, 1987,9월호)



<그림 83>
1987년결혼식
(우리나라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고찰, p.70)

혼례복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개성화를 원하면서 세련된 멋을 추구하고 싶어 하게 되었다. 서양식 웨딩드레스가 화려해졌으며 신랑의 혼례복도 여러 형태의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그림 80~83>.

근래에 들어 일부층에서는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⁹⁸⁾ 전통혼례품 전시회와 전통관혼상제 의식재현행사가 개최되고, 각 대학이나 지방에서도 민속혼례식이 거행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또한 전통혼례의 시연이나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도 전에 비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혼례식과 혼례에 관련된 준비가 각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역할은 줄고 혼례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준비를 대

98) 이은주, 전게서, p. 231.

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혼례복도 대여복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는 특급호텔에서까지도 혼례가 허용되고 혼례관련비용이 연간 12조억원이나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⁹⁹⁾. 이렇게 혼례의 대부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구형식의 혼례식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시대의 주소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복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이들의 혼례복으로 전통혼례복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99) 조선일보, 1999. 7. 1. 혼례관련 직접비용 연간 12조원.

IV. 현대혼례식에 나타난 전통혼례

1. 전통혼례의 실태

현대의 혼례는 하객들의 편의나 예식장 등의 예약형편 등을 고려한 편의주의나 실용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혼례도 대중문화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전통혼례가 올려지고 있는 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20여 곳이 있으며 그밖에 장소를 선정하여 전통혼례를 계획하여 올릴 수 있는 컨설팅, 이벤트 업체 또한 여러 곳이 있다.

전통혼례를 알리고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5년 3월에 '전통혼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重要無形文化財傳受會館)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전통혼례와 관련된 공예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며 전통혼례 각 절차에 따른 혼례용품과 그 혼례용품에 담겨진 의미를 소개하여 전통혼례에 생소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아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회로 전통혼례 영상 상영, 전통혼례상담코너를 함께 준비하여 특히 신랑신부 공모를 통한 전통혼례시연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혼례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전통혼례를 거행하는 자리도 각 1회씩 마련하여 전통혼례에 대한 친숙함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 이번 부산에서 운영되는 '에이펙(APEC) 전통문화체험마당'은 한국의 전

통혼례를 준비하여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가 전통혼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전통혼례는 국제결혼을 올리는 사람들과 유학생들이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과 혼례식을 올리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유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모국에 와서 하게되므로 결혼을 하게되므로 주로 여름 겨울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¹⁰⁰⁾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연령이 낮은 젊은 사람들과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전통혼례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한다.

혼례식은 보통 25분~40분 정도 소요되며, 초례청을 차리는 상차림 비용을 따로 치러야 하며 풍물패를 통해 전통음악을 연주할 경우도 따로 비용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이 착용할 한복이고, 일부 혼례식장에서는 수모와 기력아범도 섭외해야 한다.

혼례복은 원삼 혹은 활옷을 입고 현구고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 시에는 궁중혼례복인 적의를 대여해 주는 곳도 있다.

1) 전통혼례식 장소

현재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장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혼례를 올리고 있다고 알려진 ‘한국의 집’, ‘명륜당 야외 전통 혼례식장’, ‘봉은사 연화 전통혼례식장’, ‘롯데월드 민속관’, ‘남산예술원’ 의 다섯 곳과 전통혼례를 기획하여 주는 곳인 ‘우리 옛 멋’을 선택하였고, 이곳을 조사·방문하여 각

100) 면담,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전통혼례담당자 권미경.

장소에 따른 특징 및 혼례 절차, 혼례 모습과 혼례복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한국의 집

한국의 집은 가장 충실하게 전통혼례를 발굴하고 재현한다는 자부심이 돋보이는 곳으로서 최근에 색다르고 의미 깊은 예식을 치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언제나 예식이 가능하나 봄·가을의 성수기와 주말을 이용할 시에는 2~3개월 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전통 생활보존회'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년에 200쌍 이상의 전통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고유의 멋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환경으로 방문객들의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혼례절차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순으로 치루어 지는데, 친영은 다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으로 치러진다.

현재 여자 혼례복으로는 녹원삼이 입혀지고 있으며, 남자 혼례복으로는 자주색 단령이 입혀지고 있다<그림 84>.



<그림 84> 한국의 집에서 착용되는 전통 혼례복
(<http://www.koreahouse.or.kr>)



<그림 85> 한국의 집에서 행해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http://www.koreahouse.or.kr>)

(2) 명륜당 야외전통 혼례식장

유교적 의식을 강조한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 혼례를 성균관 전례위원회의 고증으로 재현하고 있는 곳<그림 86>으로, 이곳에서의 혼례 절차는 거례선언, 혼례청울림, 불밝힘, 다례, 전안례, 신부입장, 손씻기, 신랑신부맞절, 합환주, 하늘에 알림, 기러기 전달, 부모님께 인사, 하객께 인사, 양가부모님께서 인사, 축하마당. 성혼행진의 순서로 치러진다. 남자의 혼례복으로는 홍색 단령이 입혀지고 있으며, 여자의 혼례복으로는 활옷이 입혀지고 있다<그림 87>.



<그림 86> 명륜당
야외결혼식장의 모습
(<http://www.yugyo.org>)



<그림 87> 명륜당
야외 결혼식모습
(<http://www.yugyo.org>)

(3) 봉은사 연화전통 혼례식장

전통 혼례에 익숙하지 않은 신랑신부에게 미리 비디오테이프와 관계서적을

대여해주며, 장소 사용료 및 혼구사용료, 집기비 등이 무료이다.

신랑신부가 들어선 후 꽃불을 밝히고, 땅술붓기와 손씻기를 한 후, 신랑신부 맞절, 비나리, 잔나눔, 축하발림, 감사의례, 함께 나섬의 순으로 혼례가 치러진다.

남자의 혼례복으로는 자주색 단령이 입혀지고 있으며, 여자의 혼례복으로는 홍색의 장삼이 입혀지고 있다. 또한 여자의 머리는 떠구지 머리를 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88>.



<그림 88> 봉은사 연화전통 혼례식장에서의 혼례모습과 혼례복 착용 모습
(<http://www.bongeunsa.org>)

(4) 롯데월드 민속관

실내에 무대식으로 전통혼례식장을 마련하여 전통혼례지만 현대혼례식과 접목되어 조명이나 절차가 화려한 분위기의 전통혼례식장으로 홀기나 수모, 가마꾼, 풍물팀 등 전통혼례를 진행하는 인원을 모두 준비해 준다.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기념촬영, 신행, 현구고례의 순서로 혼례가 행해지며, 남자의 혼례복으로는 자주색 또는 청색 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자는 활옷을 착용하고 있다. 머리는 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89>.



<그림 89>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치러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http://www.lotteworld.co.kr>

(5) 남산예술원

실내와 실외 두 곳에서 전통혼례가 가능한 곳으로, 혼례식을 진행할 흥기와 기력아범, 수모 두 명을 직접 섭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혼례청 울림, 불밝힘, 대례, 전안례, 신부입장, 손씻기, 신랑신부맞절, 합환주, 하늘에 알림, 기러기전달, 부모님께 인사, 하객께 인사,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 축하마당, 성혼행진의 순으로 혼례가 치러진다.

의상은 대행업체에서 준비해 주는데, 남자는 자주색 또는 청색의 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자는 활옷 또는 녹원삼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90>.



<그림 90> 남산예술원에서 치러지는 전통혼례의 모습
<http://www.namsanartgarden.co.kr>

(6) 우리 옛 멋

장소를 섭외해서 전통혼례를 기획해주는 곳으로, 전통혼례의 상차림을 비롯하여 예식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준다. 장소섭외를 위해 2~3개월 전에 예약을 필요로 하며, 일년에 100쌍 정도의 전통혼례식을 올려주고 있다.

거례선언, 혼례청울림, 불밝힘, 대례, 전안례, 신부입장, 손씻기, 신랑신부맞절, 합환주, 하늘에 알림, 기러기 전달, 부모님께 인사, 하객께 인사, 축하마당, 닭날리기, 성혼행진의 순서로 혼례가 치러진다.

남자는 혼례복으로 자주색 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자는 화관을 쓰고 활옷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91>.



<그림 91> 우리 옛 멋에서 기획하여 치러지는 전통 혼례의 모습
(<http://www.gonji.co.kr>)

이상에서 살펴보면 전통혼례 절차는 기본적으로 육례혼례제를 간소화한 사례혼례제를 따르고 있는데, 하객과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와 사진촬영 등의







현대의 서양식 혼례순서를 접목하여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집과 명륜당 그리고 롯데월드민속관이 가장 근접한 전통혼례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장소별 혼례 비교

	전통	한국의 집	명륜당 야외전통 혼례식장	봉은사 연화전통 혼례식장	롯데 월드 민속관	남산 예술원	우리 옛 멋	신식결혼 식순
전통 혼례의 절차	<김장생의 육례 혼례제>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이재의 사례 혼례제> 의혼 납채 납패 친영 ^ 전안례 ↓ 교배례 ↓ 합근례 ↓ 합근례 ↓ 합근례	의혼 ↓ 납채 ↓ 납패 ↓ 친영 ^ 전안례 ↓ 교배례 ↓ 합근례 ↓ 합근례	거례선언 ↓ 혼례청울림 ↓ 불밝힘 ↓ 다례 ↓ 전안례 ↓ 신부입장 ↓ 손씻기 ↓ 신랑신부맞절 ↓ 합환주 ↓ 하늘에알림 ↓ 기러기전달 ↓ 부모님께인사 ↓ 하객께인사 ↓ 양가부모님께서인사 ↓ 축하마당 ↓ 성혼행진	신랑신부들어섬 ↓ 촛불밝힘 ↓ 땅술붓기 ↓ 손씻기 ↓ 신랑신부맞절 ↓ 비나리 ↓ 잔나눔 ↓ 축하발림 ↓ 감사의례 ↓ 함께 나섬	전안례 ↓ 교배례 ↓ 합근례 ↓ 기념촬영 ↓ 신행 ↓ 현구고례	혼례청울림 ↓ 불밝힘 ↓ 다례 ↓ 전안례 ↓ 신부입장 ↓ 손씻기 ↓ 신랑신부맞절 ↓ 합환주 ↓ 하늘에알림 ↓ 기러기전달 ↓ 부모님께인사 ↓ 하객께인사 ↓ 양가부모님께서인사 ↓ 축하마당 ↓ 성혼행진	거례선언 ↓ 혼례청울림 ↓ 불밝힘 ↓ 다례 ↓ 전안례 ↓ 신부입장 ↓ 손씻기 ↓ 신랑신부맞절 ↓ 합환주 ↓ 하늘에알림 ↓ 기러기전달 ↓ 부모님께인사 ↓ 하객께인사 ↓ 축하마당 ↓ 답날리기 ↓ 성혼행진	촛불점화 ↓ 개식선언 ↓ 신랑입장 ↓ 신부입장 ↓ 신랑신부 맞절 ↓ 혼인서약 ↓ 성혼선언 문낭독 ↓ 주례사 ↓ 이벤트(축 가등) ↓ 내빈계인 사 ↓ 신랑신부 행진 ↓ 폐식
모든 장소에서 사례혼례제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다.								

<표 8> 장소별 전통혼례복 비교

구분	혼례복			
	착용 사진	남·녀 복식 분석		대여 가능
		남자	여자	
한국의 집		자주색 단령	녹원삼	
명륜당 야외전통 혼례식장		홍색 단령	활옷 띠구지 머리	
봉은사 연화전통 혼례식장		자주색 단령	홍색 장삼	
롯데월드 민속관		홍색 단령	활옷 화관	
남산 예술원		홍색 또는 청색 단령	활옷 또는 녹원삼 화관	
우리 옛 멋		홍색 단령	활옷 화관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혼례 장소에서 입혀지고 있는 혼례복은 남자의 경우 홍색 단령을 입고 여자의 경우에는 활옷을 입는 곳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활옷이나 녹원삼, 당의를 모두 혼례복으로 허용하였지만 민간에서 활옷을 혼례복으로 사용하기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여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화려한 활옷이 더 많이 입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 혼례복이 활옷 뿐 아니라 원삼이나 당의의 아름다움을 잘 알려서 전통 혼례복에도 활옷 한가지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다양하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혼례를 올리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2) 전통혼례에 대한 인식 조사

전통혼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은 앞으로 혼례문화의 주역이 될 대학생으로 전통혼례에 대한 태도와 지식정도, 또 혼례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착용여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총 12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11월이며, 조사대상 인원수는 남학생 70명, 여학생 144명으로 총 214명이다.

선호하는 혼례복을 선택하는 문항에선 현재의 혼례에서 혼례복의 중요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의 전통혼례복에 대한 선호도만을 조사하였으며, 전통복식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이 전통한복으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과 현재 전통혼례를 행하는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활옷, 원삼, 당의 3가지를 제시하였고, 남학생인 경우 배우자인 여성의 혼례복으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문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전통혼례에 관한 태도

전통혼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질문에서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에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남녀 모두 대체로 낮은 평균치(3.67 미만)를 보여 전통혼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호의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표 9>.

<표 9> 전통혼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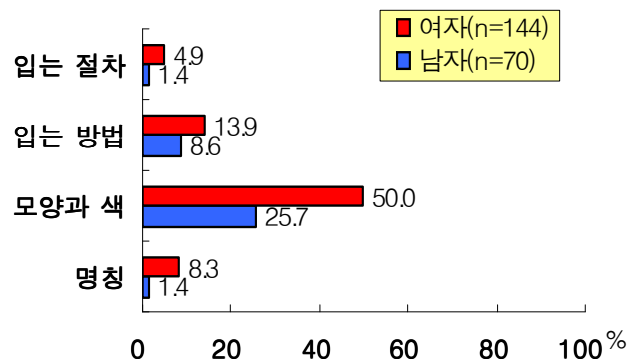
(n=214)

성 별 전통혼례에 관한 태도	남자 (n=70)	여자 (n=144)	t
전통혼례식에 관심이 있다	2.86	3.06	-1.29
전통혼례를 올릴 생각이 있다	2.76	2.77	-0.96
전통혼례식의 절차를 알고 있다	2.07	2.25	-1.34
전통혼례복의 이름을 알고 있다	1.91	2.11	-1.44
전통 문화는 학습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3.54	3.67	-1.04

(2) 전통혼례복에 대한 지식

전통혼례복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혼례복에 대해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혼례복의 모양과 색, 입는 방법, 혼례복의 명칭, 입는 절차 순으로 나타났다.

혼례복에 대한 모양과 색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대생의 경우는 50%이상 모양과 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는 절차나 명칭에 대해선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전통혼례복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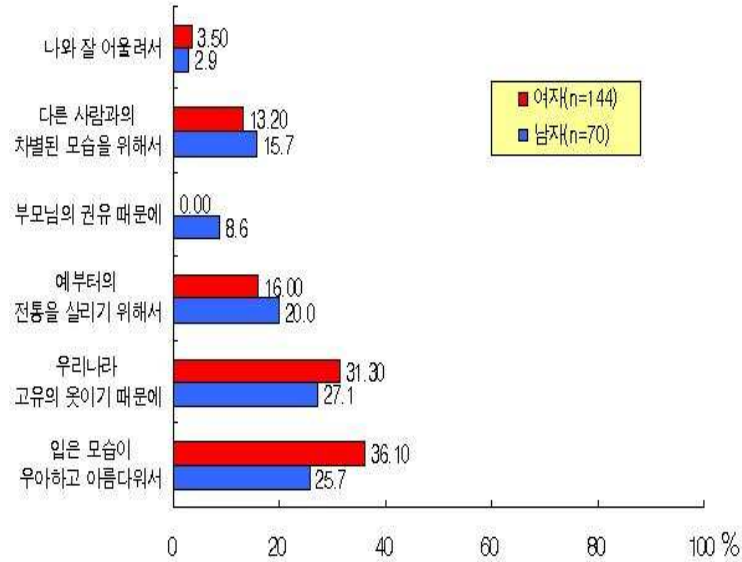


<그림 92>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

(3) 전통혼례복의 착용 이유

혼례시 전통혼례복을 착용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여자 응답자와 남자응답자 모두 ‘입은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와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나와 잘 어울려서’라는 응답에 극히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전통혼례복에 대한 이미지가 현대의 혼례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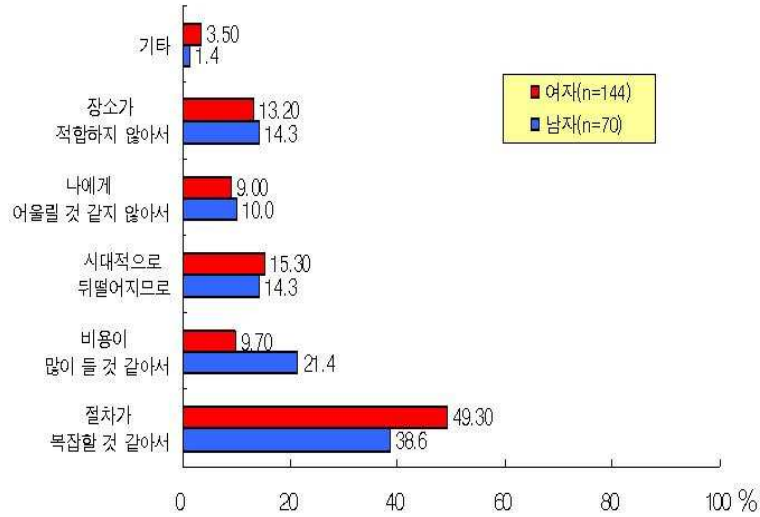
도 낮은 빈도의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전통혼례복에 대한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그림 93>.



<그림 93> 전통혼례복의 착용이유

(4) 전통혼례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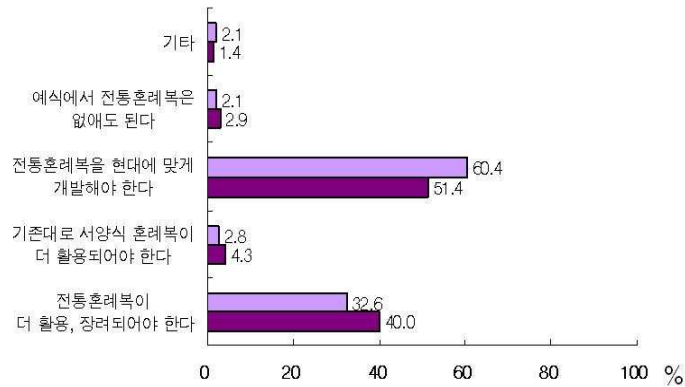
전통혼례복의 착용 이유와 반대되는 질문으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 응답으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의 빈도가 월등하게 높았다. 남녀 대학생 모두 전통혼례복을 복잡하고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에 기입한 것 중에서 ‘웨딩드레스가 예뻐서’, ‘혼례식을 두 번이나 올려야 하게 때문에’ 라는 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례복은 서구식 웨딩드레스이다’ 라는 인식이 굳혀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그림 94>.



<그림 94> 전통혼례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5) 전통혼례복이 나아갈 방향

전통혼례복이 나아갈 방향은 첫째, 전통혼례복을 현대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혼례복이 더 활용,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대로 서양식 혼례복이 더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예식에서 전통혼례복은 없애도 된다. 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전통혼례복에 대한 계승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이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림 95>.



<그림 95> 전통혼례복의 미래

(6) 입고 싶은(혹은 입었으면 좋겠는) 혼례복

활옷, 녹원삼, 당의의 입은 모습 중에서 원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활옷과 당의의 순이었다<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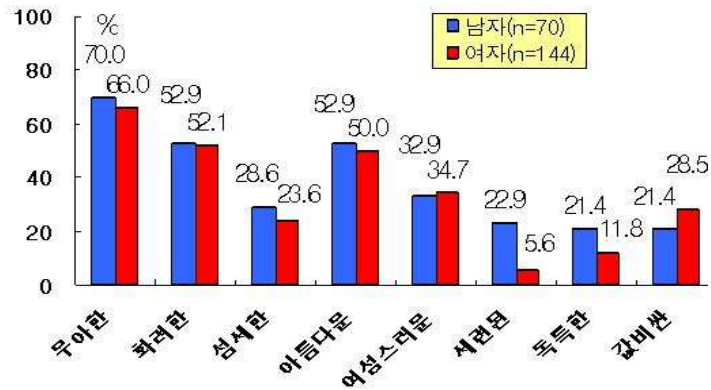
<표 10> 입고 싶은 전통혼례복

혼례복	활옷	원삼	당의
% (명)	35.5 (76명)	62 (133명)	2.5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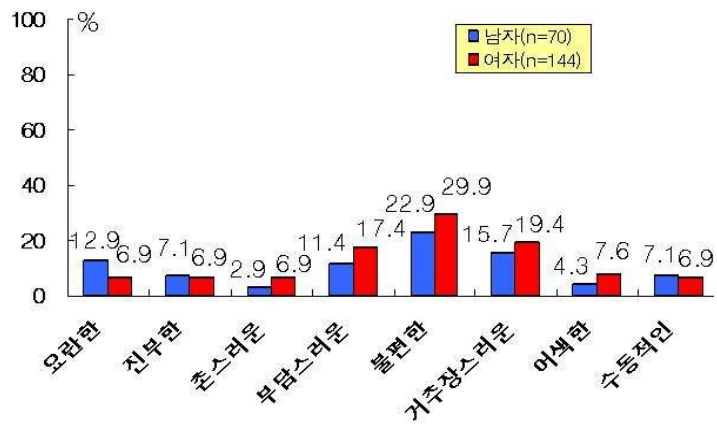
(7) 전통혼례복의 이미지

<표 96, 97>은 전통혼례복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형용사의 빈도에 관한 그래프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 선택이 높았다. 그 중에서 전통혼례복의 긍정적 이미지의 형용사로는 ‘우아한’, ‘화려한’, ‘아름다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 96>,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로는 ‘불편한’, ‘거

추장스러운'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7>. 현대에 있어서 전통혼례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96> 전통혼례복의 긍정적 이미지



<그림 97> 전통혼례복의 부정적 이미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별에 따른 전통혼례에 관한 태도는 남녀 모두 대체로 낮은 평균치를 보였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았다. 전통혼례복에 대한 지식은 혼례복에 대한 모양과 색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통혼례복의 착용 이유로는 '입은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와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통혼례복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통혼례복에 대한 계승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이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고 싶은 혼례복으로는 원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혼례복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단어의 선택보다는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 선택이 높았다.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는 낮은 평균치를 보였지만 혼례복이 '고유의 복식이므로 입어야 한다'는 생각과 '입은 모습이 우아하다'는 대답 그리고 '전통혼례복을 더 장려해야 한다'는 전통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보아 전통혼례에 대한 학습이나 알림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와 학교나 가정의 교육과 전통혼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겠다.

전통혼례복에 대한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전통복식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려 혼례복의 입는 방법을 간편화 한다거나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며 직접 입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다.

2. 전통 혼례에 대한 제언

관혼상제를 비롯한 인간의 통과의례 중 하나인 혼례는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계약결혼이나 수중혼례식 등 혼례의 형식과 장소는 변화하여도 그 의미만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일부에서 일상복으로 혼례를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다시 격식을 갖춘 전통적인 혼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인간이 일생에 입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을 하고자 한다는 점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더 자유로운 양식의 혼례식과 혼례복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의 사회는 오늘날보다도 더 서구화, 국제화된 사회로 혼례와 혼례복도 더욱 국제화된 예법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 예측된다.

그렇다면 전통혼례나 혼례복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생활할수록 미래의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혼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전통혼례와 복식이 살아 있기 위해서는 몇몇 전통애호가 뿐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절차와 형식이 불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절차나 형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의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식에서도 전통복식 자체를 입는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의 예와 격식을 갖추되 신분과 분수를 넘지 않는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담은 우리의 혼례식과 혼례복식이 일제시기

와 6.25를 거치면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한 결과 품위 있고 우아했던 전통양식과 상징적 의미가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전통적인 양식에서 이탈된 혼례복의 발생시기를 굳이 찾아보자면, 혼례식이 가정에서 예식장으로 바뀌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과거의 각 가정에서 장만하거나 동네에서 번갈아 가며 세를 내어 입던 것을 예식장에서 대여하게 되면서, 혼례에 기원하던 가족이나 이웃의 소박한 염원들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복식 자체의 아름다움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전통에 대한 이해 없이 상업적 목적에서 값싸고 화려한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한 결과였다.

따라서 올바른 혼례문화와 복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혼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전시회나 시연회 등의 행사가 요구된다.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한복제작자, 디자이너 등 혼례문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관계자, 전문가들을 위한 전통혼례문화와 복식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약혼식이나 혼례 후 피로연에서도 서구식 드레스를 착용하는 풍조가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적어도 약혼식이나 혼례 피로연에서 만큼은 신랑신부와 혼주 모두 전통복식을 입고 그 예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통문화는 시대에 따라 그 차이를 나타내지만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을 위해 새로운 창조로 살려져야 할 우리의 문화이다. 전통은 새로운 원천으로서 좋은 뜻으로 살려 이어받아야 할 풍습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라는 문제는 우리의 현대문화를 어떻게 창조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불릴 만큼 예를 존중해왔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혼례는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혼례는 양가의 주도자가 주도하는 가족 위주의 혼인형태였으며, 계급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달랐던 사회였지만 혼례시에는 민가에도 관복을 혼례복으로 허락했던 것으로 누구에게나 혼례는 성대하고 중요했던 경사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는 고려말기에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주자가례에 근원을 두었다. 처음에는 사대부에서만 시행하던 것이 조선에 들어와서는 주자학(朱子學)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주자가례를 일반에게도 시행하게 하여 보편화하게 되었다.

조선후기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치체계가 깨어지고 신분질서가 혼란해진 사회의 흐트러진 문물의 제도적 재정비를 하는 시기였다. 유교적 예학이 강조되고 모든 문물에 변화가 있던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혼례를 중심으로 전통혼례를 알아보았다.

첫째, 혼례절차는 조선 초기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의한 납

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길, 친영 육례혼례제로 행해졌다. 이 육례혼례제는 매우 엄격하고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여 조선중기부터 이재가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해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로 단순화되었다. 이 네가지 절차에 따른 전통혼례식은 개화기를 거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전통혼례식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둘째, 남자 혼례복은 모시 적삼과 고의를 입은 뒤, 바지, 저고리를 입고 청색 도포를 속옷으로 갖춰 입은 뒤 단령을 입고, 사모를 썼으며 각대를 매고 목화를 신었다. 여자 혼례복으로는 초기에는 사대부 층에서는 염의를 입었으며, 사치풍조가 유행하고 화려함을 선호하게 되면서 활옷, 녹원삼, 당의 등의 복식이 민간에서의 의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다. 더운 여름에도 저고리 삼작과 속옷을 모두 갖추어 입었으며 관모로는 족두리나 화관을 착용하였다.

또 혼례복의 색을 음양의 조화에 맞추어 정하였는데, 이것은 색을 통하여 혼례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이며, 또한 장식성을 높이고 염원도 담았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조선후기 사회전반에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50년대 이후 신식혼례가 도입되면서 오늘날의 혼례식은 전통적인 부분과 서구적인 혼례부분이 병존해 있는 상태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 사상과 상업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혼례의 형식과 성격이 변화되었다. 서구식 결혼식은 각종 이벤트 등 상품화된 결혼식을 선보이면서 혼례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점차 전통혼례의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전통혼례식을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앞으로 혼례의 주체가 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혼례에 대한 설문조사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전통혼례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았지만 전통혼례복을 장려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높았다.

또, 우리나라 전통혼례복이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생각한 긍정적인 태도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례복이 가지는 다소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개발 시킨다면 우리의 전통혼례복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주의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해도 혼례라는 의식은 인간에게 있어 앞으로도 일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서구화의 대열에 휩싸여 허겁지겁 달려온 우리사회지만 이제는 올바른 전통을 선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승되어질 우수한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지켜나가며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현대인들에게 예부터 인륜지대사로 여겨온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주며 전통혼례의 ‘절차의 복잡함’이라는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며 ‘입기 거추장스럽다’는 전통혼례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혼례복을 현대에 맞도록 새롭게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전통혼례와 혼례복을 널리 보급하고 입혀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1, 서울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2.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복식 2천년, 서울 : 신유, 1997.
- 권순만, 종합관혼상제,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2002.
- 권영한, 관혼상제, 서울 : 전원문화사, 2002.
- 김영일, 최재남, 한국의 민속과 전통의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2004.
- 김유경, 옷과 그들, 서울 : 삼신각 : 1994.
- 金鍾瑞, 深銀容, 金洺必, 姜敦求, 尹元澈, 趙興胤, 金弼洙, 傳統思想 의 現代
的 意味,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 남상민, 한국전통혼례, 서울 : 예학, 2003.
- 문화관광부, 우리 옷 이천년, 서울 : 미술문화, 2001.
- 민속학술자료총서, 예·가례·혼례7, 서울 : 우리마당 터, 2003.
-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한국복식명품,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裴泳基, 荀南淑, 結婚文化와 禮節, 서울 : 學文社1, 1994.
- 백영자, 최해율,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 경춘사, 2004.
- 石宙善, 衣, 서울 : 高麗書籍株式會社, 1985.
-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이후-해방전후, 서울 : 현
암사, 1998.
- 신병주, 가례도감의례로 본 황실의 혼례문화, 서울 : 효형출판, 2001.

- 심화진, 김월계, 이병화, 윤혜성, 최은경, 우리옷만들기,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안혜숙, 주영애, 김인옥,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 신정, 2002.
- 呂增東, 傳統婚禮, 서울 : 文音社, 1996.
-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 敎文社, 1981.
- 李京子, 우리옷의 傳統儀式,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이성미, 嘉禮都監儀軌,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李順洪, 韓國傳統 婚姻考, 서울 : 학연문화사, 1992.
- 李緯, 四禮便覽, 서울 : 명문당, 2003.
- 이재식, 권호, 전통예절과 윤리, 서울 : 시간의 물레, 2003.
- 이범직, 김기홍,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임영정, 한국의 전통문화, 서울 : 아름다운 세상, 1998.
- 좋은사람들, 세계속옷역사전, 서울 : 좋은 사람들, 2000.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 一志社, 1988.
- 趙孝順, 복식, 서울 : 대원사, 1989.
- 한국의상협회, 500년 조선왕조복식, 서울 : 미술문화,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朝鮮時代 冠婚喪祭(I), 경기도 : 편수출판실, 2000.
- 황호근, 한국의 문양사, 서울 : 열화당, 1985.
- 허동화, 우리규방문화, 서울 : 현암사, 1997.

<논문>

- 강선미, “한국 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9년.
- 강정림, “한국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년.
- 高富子,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韓國 服飾, 7, 1(1989), 83~120.
- 김경희, “서양 상장례 의식 및 복식에 관한 연구 :고대에서 근대까지”,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2002년.
- 문윤경,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1995년.
- 朴京子, “우리나라 婚禮服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研究論文集, 2, 1(1969), 199~245.
- 朴京子, “婚禮服에 關한 實態調査”, 성신여자대학교 研究論文集, 1, 1(1968), 29~60.
- 박범수, “혼례의 근본정신과 혼례의식의 개선”, 學生生活研究, 25, 1(1999), 57~82.
- 박정숙, “개화기 이후 한국 혼례복식의 변천동인과 미적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2004년.
- 박환영,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인문학연구, 37, 1(2004), 159~171.
- 박현미, “조선시대 신분에 따른 여자혼례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04년.

- 박혜인, “건전혼례의 이념과 실천”, 科學論集, 26, 1(2000), 1~14.
- 宋明見, “우리나라 婚禮服 變遷에 관한 研究” : 開化期 以後의 婚禮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74년.
- 신경애, “전통 혼례복의 실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년.
- 양현주, 권영숙, “한국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감성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9, 1(2001), 19~32.
- 이기백, “韓國의 傳統文化”, 서강대학교 인문논집, 7(1)(1997), 3~41.
-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4, 5(2000), 724~735.
-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6, 8(2002), 1216~1227.
- 이순자, “우리나라 傳統婚禮와 現代婚禮에 關한 研究”, 服飾文化研究, 3, 1(1995), 157~190.
- 李曦載, “한국전통혼례의 윤리적 평가”, 인문과학, 3, 1(1997), 231~244.
- 은영자, “우리 나라 혼례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26, 1(2000), 87~102.
- 전순영, “한국고유 여자 혼례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86년.
- 전혜숙·김숙경, “朝鮮後期 女子 婚禮服에 관한 研究”, 服飾文化研究, 10, 2(2002), 160~177.
- 조국선, “전통혼례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

교대학원, 2004년.

조효순, “조선 초기 혼례 풍속 연구”, 服飾文化研究, 5, 1(1997), 29~42.

조효순, “朝鮮朝 婚禮服 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 1(1997), 49~61.

韓相淑, “근대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5년.

홍나영, “20세기 한국 혼례(폐백) 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4, 4(2000), 594~604.

<기타>

<http://www.koreahouse.or.kr>

<http://www.namsanartgarden.co.kr>

<http://www.lotteworld.co.kr>

<http://www.gonji.co.kr>

<http://dh254.com.ne.kr>

<http://www.goweddinghall.com>

<http://www.urimwedding.co.kr>

<http://img.search.chol.com>

ABSTRACT

The reality of the conventional wedding outfit reflected in the modern wedding outfit

**Kim, So Eu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a salutation originating from confucianism provides rules in the social system and processes of behavior. Traditional wedding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monies.

Traditional wedding joins two individuals in marriage allowing them to begin a new life together and create a family.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succession of family owned businesses and the prosperity of one's family and in turn society.

This article stresses the Korean wedding dress and wedding process as a bridge to learn traditional values. The change to modern styles of the traditional wedding dress has one ascertain if there is a change the values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society.

Cloth is one of the most visible aspects of any culture. The more refined, it

reflects a more complex political, economical and emotional society.

Based on books related to the many the aspects of traditional weddings and past and current articles, the research for this article was supplemented by visits to museums and wedding halls performing traditional weddings. For valuable insight, university students were also interviewed.

First, traditional wedding was performed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wedding ritual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order, 'Nap-Chae', 'Mun-Myoung', 'Nap-Gil', 'Chung-Gil' and 'Chin-Young' in 'SaRae-PyunRam' 1844. The four a salutation are 'Eui-Hon', 'Nap-Chae', 'Nap-Pae' and 'Chin-Young'. The 'Chin-Young' wedding ceremony's order is 'Chun An Rae', 'Gyo Bae Rae' and 'Hap Keun Rae'.

Second, the groom usually wears 'Dan-Ryong', 'Sa-Mo', 'Gak-Dae' and 'Heuk-Hwa', the bride wears 'Won-Sam' or 'Hwal-Ot' and 'Jok-Du-Ri' or 'Hwa-Gwan'.

In the past, this cloth was permitted for only government officials but an exception was made for wedding ceremonies, because of it's significance.

Third, because of the fall of the Chosun dynasty in 1900 a multitude of western cultures diversified Korean society. It changed the social environment, politics and economics. It placed a new value on the aspects of the outside world. During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changed the traditional. Currently, only the 'Pae-Baek' is used in a western style wedding ceremony.

In globalization world, we cannot criticize the western culture style wedding and revert to traditional culture.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reserved the mentality and concepts of the traditional wedding and modern wedding.

In present Korean society,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wedding. Thus the government has created an exhibition and allocated sites where have one can have a traditional wedding.

After reviewing this research one wishes there to be a longing and more modern interest for the traditional wedding dress to be used in a way where it's beauty is recognizes and value.

전통혼례복식 연구를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전통혼례와 혼례복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의 생각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 10.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김 소 은
지도교수 심 화 진

1. 다음은 전통혼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통혼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전통혼례복을 입고 전통혼례를 올릴 생각이 있다.	1	2	3	4	5
3. 전통혼례식의 절차에 관해서 알고 있다.	1	2	3	4	5
4. 전통혼례복의 이름에 관해서 알고 있다.	1	2	3	4	5
5.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라도 전통혼례식이 학습되어야한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II. 다음의 혼례복에 관한 내용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전통혼례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는 대로 표(√)하십시오(복수응답)

- ① 혼례복의 명칭을 안다 () ② 혼례복의 모양과 색을 안다()
- ③ 입는 방법을 안다 () ④ 혼례복의 입는 절차를 안다 ()
- ⑤ 아는 것이 없다 ()

2. 만약 귀하께서 전통혼례복을 착용하게 된다면?

- ① 입은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 ②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기 때문에 ()
- ③ 예부터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④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
- ⑤ 담들과 다른 개성 있는 모습을 위해서 () ⑥ 나와 잘 어울려서 ()

3. 만약 귀하께서 혼례 시 전통혼례복을 착용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 ②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 ③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므로 () ④ 나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
- ⑤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 ⑥ 기타기입 _____

4. 전통 혼례복의 색중 홍색, 녹색, 청색, 황색 등의 색이 주는 느낌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화려하다 () ② 요란하다 ()
- ③ 촌스럽다 () ④ 멋스럽다 ()
- ⑤ 기타 ()

5. 혼례복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① 예식에서 전통혼례복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 ② 기존의 예식대로 서양식 혼례복이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
- ③ 전통혼례복을 현대에 맞도록 새로운 혼례복이 개발되어야 한다. ()
- ④ 예식에서 전통혼례복은 없애도 된다. ()
- ⑤ 기타기입 _____

III. 다음은 전통혼례복의 사진입니다.

1. 여자 혼례복 사진 중에서 본인(여자인경우) 혹은 배우자(남자인경우)가 전통혼례를 올린다면 입고 싶은 혼례복을 선택해주시오.

①



②



③



2. 위의 전통 혼례복을 보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아래의 형용사중에서 찾아 있는대로 ○표 하십시오.

우아한() 요란한() 화려한() 진부한() 섬세한() 촌스러운()
아름다운() 부담스러운() 값비싼() 불편한() 여성스러운()
세련된() 거추장스러운() 독특한() 어색한() 수동적인()

IV.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나이는? 만 _____세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